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에 대한 연구
-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송 이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에 대한 연구

: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혜 란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송 이

박송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조 홍 식 (인)

부위원장 하 정 화

위 원 김 혜 란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선택이 보편화되면서 이혼여성들에 대한 스티그마는 줄어들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경험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사와 가족 관련 정책자가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여성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와 ‘이혼선택은 혼해졌기에 관련한 차별은 없다’ 라는 담론 사이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와 그에 대한 대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인정(recognition) 논의와 연결하여 이혼여성의 경험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정치라고 불리는 인정 개념은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무시나 모욕을 할 경우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정서적 욕구나 도덕적 판단 능력, 고유한 개성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를 불인정(non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불인정을 부여받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운 상태가 된다(김소임, 2007; Fraser, 2016에서 재인용). 논의를 적용하면 이혼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결혼생활의 이탈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혼여성은 해당 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킴으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이혼여성들은 어떠한 스티그마를 경험하는가?’, ‘2)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구함으로써 당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40대 이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 경험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주제 묶음과 13개의 소주제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이혼여성의 선택과 책임의 연결고리’에서 이혼여성들은 이혼이라는 선택을 친정 부모가 온전하게 이해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친정 부모가 결혼생활을 거치며 평생 동안 가졌던 가부장적 가치관은 그녀들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가로막았다. 한편,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혼을 바라던 게 아니었기에 이혼을 하자고 한 여성에게 유책을 부여한다. 잘 모르는 타인들은 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선택은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나 당당함으로 여겨지지만 경제적으로 하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선택은 이혼여성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거나 나아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보다 열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스티그마를 내재화 시켜 이혼선택으로 인한 결혼가족의 해체의 유책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혼여성을 격하하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혼가족’을 선택한 이혼여성들의 실제적 경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거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모습을 이혼여성이 보이지 않으면 남성의 원조가 있을 거라는 단정을 쉽게 한다. 또한, 타인들은 이혼여성들의 실제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했기에 부정적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가정한다. 이혼여성들은 타인들이 바라보는 이혼여성의 성격이라는 틀(frame)로 평가를 받기 싫어하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이혼여성들의 행동을 그 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이혼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다른 평가들’은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점과 순결에 대한 강조가 이혼여성들의 성적 욕구와 주체적인 성적 행동, 여성의 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교환에 대한 억압, 은폐 등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성적인 정체성 형성을 하지 못하는 무화(無化)된 상태가 된다.

넷째, ‘이혼여성의 불안한 돌봄’에서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한 후에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가 자신의 이혼을 자녀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는 행위,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자녀들의 행동을 보

면서 자신의 돌봄 행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들을 잘 키우면 타인들이 이혼가족의 자녀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선택에 의해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재현하는 사회 환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사회복지 급여제도에서 한부모에게 단독으로 주는 급여는 미미하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평가를 받아 급여가 이루어지는데 이혼여성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주거를 분리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또한, 이혼여성들이 키우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급여제도가 가부장성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혼여성의 문제를 연애로만 가져간다. 로맨스로만 그려내는 이혼여성의 삶은 이성애로서의 성애화 된 여성의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과 어려운 지점들을 생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이혼여성들은 저임금을 받고 인식이 좋지 않은 일자리(예:유흥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는 더욱 심화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은 3개의 주제 묶임과 6개의 소주제들을 발견했다. 이혼여성의 대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타인·자기 스티그마 변화와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피하기, 관리하기, 맞대응하기로 분류되었다. 첫째, ‘피하기’에는 이혼여성들이 타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상황을 예상하거나 부여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구성된 스티그마를 해체 당할 위협을 받았을 때 해당 행동을 한다. 그들은 스티그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티그마를 바꾸려는 행동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기에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을 피한다. 또한, 이혼여성들이 자기 스티그마를 가진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생각을 해체할 위협을 주면 피한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라는 자기 스티그마를 가진 이혼여성의 경우 주변에 성적 활동을 하는 이혼여성이 계속 연락을 해오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접촉을 끊고 무시한다. 하지만 이혼여성들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혼여성들의 행실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같은 이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나아가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봐 불안해한다. 둘째, ‘관리하기’에는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극복하려는 대처다. 해당 대처에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안 하기, 다른 모습으로 상쇄시키기, 자신의 돌봄을 보완하기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맞대응하기’는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대처행동이다. 이 대처행동에 해당하는 현상은 하나의 현상만 분석결과로 도출되었으며 이혼여성들의 다른 대처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해당 대처는 이해시키기로 이혼여성은 자신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정부모에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맥락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친정 부모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혼여성의 삶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여성이 소수자임을 인식하며 이들의 일상적·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티그마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둘째, 이혼여성의 혼인상황, 성과 경제적 상태 등 각 상태에 따른 스티그마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차이가 있는 정의에 대한 담론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로, 이혼여성들의 대처 경험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행동의 적응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대신 사회적인 정상적 규범과 가치,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있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접근으로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에 대한 탐구와 지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요어 : 스티그마, 대처, 이혼여성, 인정 정치, 현상학적 접근, 질적 연구

학 번 : 2014-20254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8
 제 2 장 문헌고찰	10
제 1 절 스티그마 개념 논의	10
1. 사회적 스티그마	11
2. 자기 스티그마	16
3. 복합 스티그마	18
제 2 절 스티그마로서 스트레스와 대처	20
1. 스트레스와 스티그마	20
2. 대처행동에 관한 시각 : 성향 vs 상황	21
제 3 절 이혼여성 관련 연구	23
1. 이혼여성에 대한 경험연구	23
2.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 관련 연구	27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39
제 1 절 연구 설계	39
1. 연구 접근	39
2. 연구의 과정	45

제 4 장 연구 결과	57
제 1 절 연구참여자 소개 : 이혼여성들의 결혼, 그리고 이혼	57
1. 연구참여자 A	57
2. 연구참여자 B	59
3. 연구참여자 C	60
4. 연구참여자 D	62
5. 연구참여자 E	63
제 2 절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경험	65
1. 이혼여성의 선택과 책임의 연결고리	65
2. 이혼여성을 격하하기	72
3. 이혼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다른 평가들	80
4. 이혼여성의 불안한 돌봄	88
5.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재현하는 사회 환경	94
제 3 절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	101
1. 피하기	102
2. 관리하기	105
3. 맞대응하기	112
 제 5 장 결 론	 114
제 1 절 연구결과 및 논의	114
1.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경험- “타인을 통해 만들어진 이혼여성에 대한 틀(frame)을 가지고 자신의 인식을 내재화 함”	114
2.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려고 노력함”	119
제 2 절 제 언	120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124

참고문헌	127
1. 국내문헌	127
2. 국외문헌	132
3. 인터넷 자료.	138
[부 록] 면접지	139
Abstract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1994년 6만 5천 건으로부터 2004년 13만 8천 건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10만 7천 건(통계청, 2016)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20년간 이혼건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혼이 흉이냐”라며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에서 스티그마를 받는 요소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상식이 만연한 듯하다. 대다수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에서 상황적 윤리로(McRae, 1978:228) 변화하여 이전에는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taboo)였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년에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세계 사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idows Day)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82%가 ‘그렇다’라고 답하여 한국이 조사대상 17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¹⁾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수준에 대한 대답도 35%는 “무척 심하다”, 47%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하여 조사대상국

1) 17개 국가의 이혼여성 차별여부 긍정답변 비율은 이집트(80%), 터키(72%), 멕시코(50%), 이란(51%), 인도(46%), 중국(46%), 영국(41%), 미국(37%), 러시아(28%), 타이(28%), 프랑스(17%)로, 한국 다음으로 이집트, 터키가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터키는 여성을 관행적으로 차별하는 정도가 높은 무슬림 문화가 만연함을 감안하면 한국사회가 이들 국가보다 이혼여성의 차별여부에 대한 긍정답변이 높다는 결과는 놀랍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 차별이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는 ‘그렇다’라는 답변 응답률이 낮고, 이런 차별에 관심이 높은 한국 등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답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이 기관은 밝혔다. 만약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나라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혼차별여부의 지각에 민감하다면 조용환(1999)의 인간은 시간, 공간,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이혼여성들이 차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높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면밀한 의식적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 지표를 통해 이혼여성과 기혼여성 간 생활과 가족 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정에 차이가 크다고 짐작할 수 있었고 이혼여성과 관련된 스티그마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²⁾이었다. 인간 지식에 대한 권력은 미시적 상호작용에 의해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푸코의 담론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타자화, 소수화 되는데 그에 따른 스티그마와 차별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 통계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혼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 행사가 노골적으로 거부당하면 법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이혼자들에 대한 차별은 은근하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혼자들이 적극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일보, 2007).

현대사회에서 ‘이혼여성은 차별³⁾을 당하고 있다’와 ‘이혼 선택은 혼해졌기에 관련한 차별은 없다’라는 담론 사이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와 그에 대한 대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데 이는 정체성과 정치의 개념을 연결한 인정 논의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흔히 후기 근대사회로 가면서 무수한 선택이 공존하며 점차로 개체화·비인격화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인정 정치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현재 인정 논의는 대표적으로 Charles Taylor(1994), Axel Honneth(1996), Nancy Fraser(2008) 등에 의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장과 적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인정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Taylor는 근대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학문 작업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자아의식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억압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 뒤에는 초기 사회 속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심층적 사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혹은 잘 못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 욕구, 즉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인정을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정의 반대개념인 불인정(nonrecognition)은 Honneth가 구체

2) 조사국들의 평균은 46%였다.

3) 스티그마의 한 요소이다. 관련 개념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상술하였다.

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어떤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집단의 법적 권리를 유보하는 행위가 무시나 모욕으로 이어지면서 각 개인의 정서적 욕구나 도덕적 판단 능력, 고유한 개성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당사자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김소임, 2007; 신유림, 2009; Fraser,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인정 정치의 담론을 기초로 이혼여성들의 인정(recognition)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인정 정치 담론의 통찰을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혼여성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스티그마가 없다는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가 있다면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는 무엇인가? 이혼여성들은 그 스티그마를 어떻게 평가하며 대처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혼여성들의 경험이 언어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사회에서 주류화 된 담론이 그들 삶의 경험에서 미시적 상호작용에 의해 소통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의 주류 담론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가 이혼여성과 관련된 연구내용에서 어떤 지점을 차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혼여성과 관련된 경험 연구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연구들은 스티그마를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맥락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관련된 담론을 아직까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전 이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탐구이다(김수정 외, 2001; 이경성, 2001; 이경희 외, 2015). 해당 연구들에서는 이혼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혼여성들이 왜 이혼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이혼 전 상황을 드러내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들

이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재현되며 그 재현의 내용을 이혼여성들이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이혼 이후의 이혼여성이 해야 할 역할경험을 강조한다. 이 때 이혼여성들은 한부모 여성가구주들로 규정되면서 이혼 후 겪는 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였다(김혜영 외, 2008; 정상규 외, 2010; 이현송, 2008; 소현숙, 2014; 신희정, 2010; 오선순, 2001; 정미숙, 2007; 정현지, 2004; 황은숙, 2005; 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이혼보다는 한부모로서 책임져야 하는 생계와 부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⁴⁾.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전락하면서 이혼을 선택하여 사회 내에서 소득과 생계에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왜 그들이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이혼여성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되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지 등 우리 사회·문화의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로는, 이혼여성의 내면 경험에 집중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이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의미 찾거나 정체성 변화와 같은 이혼여성의 인지와 심리에 관련된 경험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였다(김옥경, 2012; 김지혜, 2008a; 김지혜, 2008b; 김순남, 2009; 박형숙 외, 2016; 전은주, 2001; 송옥, 2013; 최은화 외, 2010). 그러나 해당연구들은 이혼여성들이 주요 관계망에서 겪는 상호작용이라는 외부적 상황은 그대로 둔 채 결혼제도와

4) 이러한 연구들은 ‘주부=여성’이라는 고정된 역할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가장은 생계부양 역할과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옥선화 외, 2007). 또한, Nancy Fraser의 인정담론에 의하면 부정의는 사회경제적 부정의와 문화적 부정의로 나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전자의 부정의에 입각한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근거로 제시한다. 낸시 프레이저는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대한 해결은 재분배로 문화적 부정의에 대한 해결은 인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경제적인 재구조화된 ‘재분배’ 해결방법은 소득의 재분배, 노동 분업의 재조직화, 기타 구조적 경제구조의 변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인정’ 해결방법에는 한계 집단의 문화적 산물과 존중받지 못했던 정체성을 다시 가치 부여하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보다 급진적으로는 표상, 해석, 의사소통을 하는 기존의 사회적 패턴을 변경하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소임, 2007:63-64).

이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자아인식을 하는 개입을 강조함에 따라 관계망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극복과 긍정성을 강조할 뿐 타인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영향 받는 개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넷째로는, 이혼여성이 이혼 가족과 자녀의 양육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이혼가족과 모-자녀 관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김경순, 2010; 김혜선 외, 2010; 천혜정 외, 2007). 이혼여성들의 급격히 변한 가족상황과 양육관계의 질에 대한 탐구를 함으로써 남녀로 이루어진 가족과는 다른 가족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자녀돌봄에 대한 남녀의 역할, 돌봄 역할에 관한 인식, 우리 사회 내에서 이혼자가 혼자 돌봄을 하기 어려운 현실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즉, ‘자녀돌봄이라면 이렇다’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을 제대로 연구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나 자립의지에 관련된 연구이다(이재은, 2009; 지명원, 2001). 해당 연구들은 이혼을 인정해주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반대 방향으로 타인이 이혼을 불인정했을 때 이혼여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한편, 이혼여성의 부정적 상호작용, 즉 스티그마에 대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처 양상을 다른 연구 주제 내에서 일부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김지혜, 2008a; 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이순영,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배제, 생애주기 상의 이혼기의 의미, 이혼의 정체성, 이혼 후 자립과 갈등이라는 주제 내에서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이혼여성들이 부정적 상호작용을 받을 때 그들이 수치심, 회피, 이혼 사실을 골라서 알리기 등을 대처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상호작용의 이혼여성 자체 해석이나 과정상의 대처는 보지 않은 채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나의 스트레스 자극요인으로 단순히 살피고 그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면적인 해석과 대처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혼여성이 스티그마를 해석⁵⁾하고 대처하는 즉, 이혼여성을 부단히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로 파악하고자 했다. 기존의 이혼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요 관계망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티그마 현상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하나의 자극으로 상정하고 이혼여성은 수동적으로 이러한 스티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서술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그마를 타인으로부터 받는 편견, 부정적 상호작용, 부당한 차별, 집단에서 분리 등으로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 대처 이론의 유형을 참고하여 스티그마를 파악하면서 이혼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스티그마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혼여성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해석, 대처의 범주를 다채롭게 살폈다. 기존의 스티그마 연구들은 이혼여성들이 극복하거나(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송옥, 2013) 적응해야 할 요소(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이순영, 2000; 김지혜, 2008b)라는 특징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자체를 극복이나 적응의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이혼여성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 흐름에서 이혼한 여성들의 경험이 다루어지는 방식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

5)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 대처라는 이론적 틀을 사용했기에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는 이혼여성의 인지적 평가를 ‘해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의미나 내용을 평가하는 것보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질적 연구의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나 인터뷰 질문지에서는 ‘평가’라는 용어보다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적인 목적은 이혼여성의 사회적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사와 가족 관련 정책자가 이혼여성들을 둘러싼 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혼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스티그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 어떤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외부에 있는 스티그마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혼여성들은 어떠한 스티그마를 경험하는가?

[연구문제 2]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coping)
경험은 어떠한가?

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스티그마 개념 논의

본 장에서는 사회 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위계, 억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스티그마라는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스티그마라는 개념은 사회심리학⁶⁾ 분야에서 논의가 정교하게 되었으며 개념 논의의 추동을 하게 한 집단은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었다(Corrigan, 2000; Crocker 등, 1998; Goffman, 1963; Jones 등, 1984; Link 등, 1989; Link 등, 2001). 그러나 해당 개념이 하나의 집단만 국한되기 보다는 여러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에 근거하여(Link 등, 2001) 비만 여성(Miller 등, 1998) 아프리카-아메리칸(Lenhardt, 2004), HIV/에이즈 보균자(Campbell 등, 2005), 간질 질환자(Schneider 등, 1980), 폐암환자(변혜선 외, 2015), 결핵환자(박수정 외, 2015), 청소년(김경준, 2010), 복지수혜자(Jarrett, 1996; 유연정, 2005)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스티그마 경험에 대한 경험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장애와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스티그마 개념의 정교화가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 경험을 명확화 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스티그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살폈다. 기존에 정교화 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는 개인의 내재화된 장애 속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후에 정신장애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이름 붙여짐으로써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Link 등, 1989)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결혼제도의 이탈로 인해 이혼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이름 붙여짐으로써 스티그마가 발생하는 경험의 맥락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경험을 참조하기 위해 사회적 스

6) 사회학, 의학, 간호학 등에서도 스티그마의 개념정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조작화가 어렵고 보편적 현상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이인옥 외, 2006).

티그마⁷⁾, 자기 스티그마, 복합 스티그마의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사회적 스티그마와 자기 스티그마를 구분하는 기준은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이다. 타인이 스티그마를 부여할 시 사회적 스티그마이고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할 스티그마를 염려하며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인 느껴진 스티그마는 자기 스티그마이다. 한편, 복합 스티그마는 스티그마의 내용의 복합성에 관한 것으로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둘러싼 타인들의 인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그 개인의 사회 기회 참여에 장벽이 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혼여성이라면 ‘이혼’ 과 ‘여성’ 을 둘러싼 타인들의 시선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 사회적 스티그마

스티그마에 대한 개념 정의는 비교적 합치되는 반면 그 유형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외 연구들은 스티그마(stigma), 표식(mark), 고정관념(stereotype), 낙인(labeling), 편견(prejudice), 차별(discrimination)의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김정남, 2003; 김경준, 2010; 박수정 외, 2015; 변혜선 외, 2015; 송승현, 2005; 이인옥 외, 2006; 유연정, 2005; Corrigan, 2000, Corrigan, 2002; Goffman, 1963; Jones 등, 1984; Link 등, 2001). 스티그마라는 용어 자체가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특성, 특성에 대한 태도와 태도를 통해 유발된 행동 등 스티그마를 둘러싼 선행요인, 결과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정리한 스티그마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스티그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주목할 현상에 대한 참고를 했다.

스티그마는 Goffman(1963)에 의해 처음에 정의가 내려졌다. 그에 의하

7) 기존 스티그마 논의를 한 연구들은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 스티그마와 복합 스티그마와의 구분을 위해 사회적인 타인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과 ‘스티그마’ 라는 용어를 붙여 ‘사회적 스티그마’ 라는 용어로 개념 논의를 하고자 한다.

면 스티그마는 ‘심각한 불명예를 주며 신뢰를 극도로 상실하게 하는 속성’ 이라고 하였다. Crocker 등(1998)은 ‘개인들로서 그들의 인간성 전체에 문제가 있는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그 집단에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지니고 있는 개인’ 이라고 보았으며 Stafford와 Scott(1986, p. 80)은 스티그마는 ‘사회적 기준(norm)과는 반대되는 사람의 특성’ 이고, 여기서 “기준” 이란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해야만 하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스티그마의 개념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관련 연구들은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인 특성, 특성에 대한 태도, 태도를 통해 유발된 행동이라는 차원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선행요인은 개념화 전에 발생한 사건(Walker 등, 1995)을 의미하는데 스티그마는 사회적 정체성 규범과 일치하지 않은 속성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다(Crocker 등, 1998; Jones 등, 1984).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선행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Goffman(1963), Jones 등(1984)이다. 이 연구들은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개인적 특성에 집중했다.

Goffman(1963)은 장애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Stigma: Note on the Management of a spoiled identity)’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개인이 속한 범주와 속성을 지칭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개인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신체적 속성들, 신체적 능력, 성격 특성 등과 같은 ‘가상적(virtual) 사회정체성’ 과 개인이 타인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각되거나 또는 지각될 수 있는 방법인 ‘실제적(actual) 사회정체성’ 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개인이 스티그마화(stigmatized) 된다는 것은 ‘실질적 사회정체성’ 이 그의 ‘가상적 사회정체성’ 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일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스티그마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신체적 결함으로 우리와 그를 구별하게 해 주는 것으로 그가 속한 범주와 속성으로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모가 특이한 사람이다. 둘째,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동성애자,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자 등에서 추정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이다. 셋째로, 인종이나 종교, 그리고 국적에 따른 스티그마이다. Goffman(1963)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하여 손상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지닌 개인이 민감하게 사회적 반응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스티그마라는 현상이 포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그마란 개인에게 귀속된 어떠한 특성으로 정의하여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타자가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유발하는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Jones 등(1984) 또한 낙인찍기를 유발할 잠재성을 지닌 표시 또는 지표를 의미하는 ‘표식(ma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표식의 속성에 따라 사회적 스티그마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표식이 사회적 스티그마화 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비독립적 차원을 밝혀내었는데 ①은폐 가능성(concealability), ②진행(course), ③붕괴성(disruptiveness), ④심미적 특성(aesthetic qualities), ⑤기원(origin), ⑥위험(peril)⁸⁾으로 분류하였다. Jones 등(1984)는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개인적 속성 외에 타자와의 관계에서 표식이 가지는 속성으로 인해 스티그마가 되는 정도를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스티그마를 통해 타자의 태도,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개인적 특성, 특성에 따라

8) ①은폐 가능성(concealability)은 어떤 표식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명확하고 잘 드러나는 반면(예 : 인종, 심한 신체장애), 어떤 표식은 은폐가 가능하다(예 : 사이비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 ②진행(course)은 어떤 사회적 낙인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만(예 : 여드름에 의한 피부문제) 또 다른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된다(예 : 손발이 절단된 장애인). ③붕괴성(disruptiveness)은 표식의 종류에 따라서 낙인찍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일정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형성되는데 특별히 사회적 낙인이 가시적이고 위험하고 또는 미적으로 불쾌해서 붕괴적일 때 타인들에 의해 강한 부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④심미적 특성(aesthetic qualities)은 어떤 유형의 표식들 때문에 낙인찍힌 개인은 추하고 불편하고 혐오적으로 지각되는데 신체적 기형, 심한 피부질환,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이다. ⑤기원(origin)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표식은 그가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얻어진 것들인데 낙인찍힌 개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즉,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식이면 더 가혹하게 취급당한다. ⑥위험(peril)은 표식들은 위험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폭력 범죄 전과, 전염병 등이 가벼운 신경증, 대머리보다 타인에게 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김정남, 2003).

스티그마로 형성되는 정도를 넘어서 스티그마를 형성하는 타자와 관련된 개념화와 유형화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Corrigan(2000)은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사회인지이론 패러다임 내에서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단서(cue)와 결과인 행동(behaviors)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하는 인지적 태도(attitudes)를 규명함으로써 스티그마를 설명하고자 했다. 스티그마는 차별을 주는 자극요인(discriminative stimuli)으로 신호(signal), 자극요인과 행동을 연결하는 인지적 태도인 고정관념(stereotypes),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인 차별(discrimination)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① 신호는 증상(symptoms), 기능 결함(skill deficits), 외모(appearance)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는 Goffman(1963)의 신체적 결함, 개인적 결함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그는 낙인(labeling)⁹⁾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정신장애인이라고 등록된, 즉 이름 붙여진(labeled) 사람은 비슷한 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거나, 고용이 덜 되거나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② 고정관념은 신호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지식구조를 의미한다. 지식 구조에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열등하고 그러므로 강압적인 취급을 당해야 한다”), 자비(benevolence, “종교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부모는 아이들을 동정적으로 돌봐야 한다”), 사회적 제한(social restriction,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거리를 뒤흔다”), 위험성(dangerousness, “정신장애인들은 폭력적이고 공포스럽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Martin 등, 1981). ③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파트를 빌릴 때 어렵다거나,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벌금이 잘못 부

9)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스티그마라는 용어 대신 ‘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stigma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해당 용어에는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속성, 인지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인 편견, 이로 인한 발생하는 행동인 차별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하지만 낙인은 stigma라는 용어 대신 label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label은 labeling theory에서 해당 집단에 대한 이름 붙이기라는 의미로 외국 연구들에서는 사용되고 있어(Link 등, 1989) stigma를 낙인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과 스티그마를 구분하기 위해 labeling을 낙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과되거나, 대우에 있어서 나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인지적 매개요인 외에도 부정적 정서가 속성과 차별을 연결하는 매개요소로 꼽혔다. Corrigan 등(1998)은 이를 편견(prejudice)이라는 용어로 명명하면서 어떤 집단에게 분개하거나(angry) 공포를 느끼는 것(fear)으로 보았다.

나아가 Link와 Phelan(2001)은 스티그마의 개념이 사회·정치·경제 권력과 연결되며 개인의 내적 속성과 개인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사회 내의 권력적 관계에서 개념의 속성을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네 가지 수준에서 스티그마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① 차이에 대해 분리하고 구별하기(On Distinguishing and Labeling Difference), ② 인간 차이에 대해 부정적 속성 연결하기(On Associating Human Differences with Negative Attribute), ③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기(On Separating “US” From “Them”), ④ 지위 상실과 차별(Status Loss and Discrimination)이다.

먼저, 차이에 대해 분리하고 구별하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차이를 규명할 때 인간의 차이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이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가족 해체를 유발하는 것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이혼을 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과 기혼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구별하고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차이의 사회적 선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속성이 명백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인간의 차이는 명백히 사회적으로 선택되기에, 우리는 “속성(attribution)”, “조건(condition)”이나 “mark(표시)”라는 용어보다는 낙인(label)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는 어떻게 문화적으로 분류가 생겼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유지하냐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 차이에 대해 부정적 속성을 연결하기는 구별된 차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들을 고정관념에 연결시켜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스티그마화(stigmatized) 하는 것이다. Corrigan(1998)은 이를 편견(prejudice)으로 명명하면서 규정되는 그룹에 부정적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이혼한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이기적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기는 스티그마를 받은 집단의 부정적 속성들을 집단 외 사람들은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에게 부정적 특성이 약간 “우리”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고정관념은 순조롭게 형성된다. 사람들은 이혼을 자유롭다고 여기면서도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이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빼앗을 수도 있다는 질투로 결혼한 집단은 이혼집단을 소외시킨다(Gerstel, 1987).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구조적 스티그마로 나타나는 지위 상실과 차별이다. 차별은 스티그마의 결과(Saylor 등, 2002; Crocker 등, 1989)라는 연구도 있지만, 스티그마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적 속성으로 인해 지위상실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의료, 교육, 소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할 기회를 놓치며 더욱 스티그마화 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Heatherton 등, 2000; Link 등, 2001). 따라서 이러한 스티그마로 인해 소득, 교육, 지위, 건강 서비스, 주거 등에 대해 불리한 경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스티그마(stigma), 표식(mark), 고정관념(stereotype), 낙인(labeling), 편견(prejudice), 차별(discrimination)이 혼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스티그마”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인정 관점에 근거하여 그들의 스티그마 경험을 살피기에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지·정서 과정에서 나아가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내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 경험을 볼 것이다. 이 때 편견 및 차별을 포괄하는 스티그마 개념까지 포괄하였다.

2. 자기 스티그마

한편, 지금까지 스티그마와 관련된 논의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할

스티그마를 염려하여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인 느껴진 스티그마(felt-stigma)¹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스티그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열등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에 근거한 차별, 즉 행해진 스티그마(enacted stigma)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송승현, 2005; Nettleton, 1995). Nettleton(1995)은 사실상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느낀 스티그마(felt-stigma)라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느낀 스티그마(felt-stigma)는 Link 등(1989)이 제시한 수정된 스티그마 이론(modified stigma theory)에서 나온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티그마와 고정관념(stereotype)의 관계를 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어떤 집단이 가진 비정상적 속성이 드러나면 바로 타 집단이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Link 등(1989)은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자와 가진 자의 단순한 행동만 부각하고 실제 스티그마를 받는 자들의 인지, 태도에 대해 연구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이라고 등록이 되는 순간 타인들이 훨씬 더 부정적 대우나 차별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를 인지하며 정신장애인 또한 그들의 인지와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따라 사회화 된 개인은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태도, 행동 등을 내면화하는 것과 같이 정신장애인이라고 만들어진 사회적인 관념들을 개인들은 내면화 한다.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스티그마를 개인의 정체성에 내재화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대중의 고정관념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절하, 수치심, 감춤 그리고 위축 등의 정서를 느낀다(Corrigan 등, 2002).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 그 상태를 숨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게 된다. 그 결과 그들 자신을 가치절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거리감을 두다가 결국 차별을 당한다.

Corrigan 등(2002)은 이를 자기 스티그마(self-stigma)로 보았으며 공공의 고정관념(stereotype), 편견(prejudice), 차별(discrimination)을 내재화한

10) 이 용어는 자기 스티그마(self-stigma)와 개념상 통한다(송승현, 2005).

개인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하였다. 첫째, 스티그마에 대한 인지형태인 고정관념에서는 스티그마 부여를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 믿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위험성, 무능, 성격적 결함인데 스티그마를 가진 집단은 이 관념을 내면화 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무능하거나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스티그마에 대한 정서형태인 편견에서는 스티그마를 부여 하는 집단이 믿음에 대한 동의(agreement)나 부정적 정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분개나 공포를 느낀다. 이를 내면화한 스티그마를 받는 집단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차별인데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집단은 편견에 대한 행동적 반응으로 일(work)을 주지 않거나 도움을 보류하거나 거주 등 기회를 제한한다. 스티그마를 가진 집단은 이를 내면화하면서 일이나 도움, 거주 등의 기회를 추구를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스티그마를 내면화 한 이혼여성의 자기 스티그마 경험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생활은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꼭 거쳐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보편화 된 사회에서 이혼은 정상과는 다른, 비정상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혼여성은 이러한 사회적 관념을 내재화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티그마 경험을 탐구하였다.

3. 복합 스티그마

Crenshaw(1989)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회문제를 파악할 때 개인의 고정된 정체성¹¹⁾으로는 한계가

11) 교차성(Intersctionality)의 개념은 결국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지가 결국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개인을 파악할 때 고정된 정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들은 곧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체성이 시시각각,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면서 정체성은 단순히 ‘~임’ being 이라기보다는 ‘~되기’ becoming의 문제로 보았다(Colin Barnes 등, 2002).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인종, 장애여부, 국적, 성적 선호 등에 따라 그 개인을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Crenshaw(1991)에 의하면 흑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회문제를 접근할 때 단일하게 여성학(feminism) 아니면 인종주의(racist) 측면으로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질을 읽어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 분야에서도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면서 장애정체성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적 모델은 기존에 장애 정체성을 무능하고,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전통적 관점을 벗어나 재평가를 통한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장애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다(Vernon, A 등, 1996). 이 때 장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사회적 장벽의 공통 체험으로 평가한 사회적 모델에는 지지를 하나 결국 장애 내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개인들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따라서, 특유의 경험을 지닌 구성원들에 대한 멤버십의 인정을 주장하면서(Monks, J, 1999) 장애정체성은 성별, 인종, 국적, 계급 등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장애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사회적 장벽을 둘러싼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 등의 이슈에서 발견되는 공통성은 편견적 태도 및 차별적 언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탐색될 수 있었다(Thompson, N, 1997; Barnes, C 등, 2002에서 재인용). 이 때 편견 및 차별을 포괄하는 스티그마 개념이 활용되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을 둘러싼 타인들의 인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그 개인의 사회 기회 참여에 장벽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Double stigma(Knesebeck 등, 2016), Multiple stigma(Slater 등, 2014), Layered stigmas(Henkel 등, 2008), Multiple Disadvantaged Statuses(Grollman, 2014), Multiple disadvantage(Best 등, 2011), 다양한 교차성과 차별(Holley 등, 2016)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인종과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과 에이즈 여부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에 접근 제약이 있는지를 경험연구로 진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을 둘러싼 여러 정체성에 대해 스티그마가 겹쳐 나타나는 복합 스티그마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혼여성들의 거주하는 지역과 경제적 계층 등은 개인의 이혼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의 상호작용 역동을 살필 것이다.

제 2 절 스티그마로서 스트레스와 대처

1. 스트레스와 스티그마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접근(Mason, 1975; 민하영, 1999에서 재인용)하여 왔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유기체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요인과 이 환경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객관적 스트레스 수준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요인만 집중하여 유기체의 주관적 평가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유기체의 지각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Lazarus와 Folkman(1984:19)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의 특정한 관계’라고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스트레스 여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객관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사건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은 특정 사건에 대해 사건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주관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Lazarus와 Folkman(1984)은 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사건의 구분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 사건으로

구분하였는데 중대한 생활사건이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자신의 갑작스런 질병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 사건을 의미한다. 일상적 생활 사건이란 외로움, 소중한 물건의 분실, 가족원간의 다툼, 다른 친구들의 따돌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생활 사건을 의미한다(민하영, 1999). 초기 스트레스 연구들은 중대한 생활사건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Lazarus와 Folkman(1984)은 중대한 생활 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젯거리들이 심리, 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훨씬 우수하다고 지적하였다.

스티그마는 사회적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스티그마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호역동이 들어간 관계적 개념이다. 스티그마 경험을 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바로 스트레스로 평가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들의 대처 전략에 따라 무시될 수도 있고 순기능적/역기능적 적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스티그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Miller 등, 2000). 본 절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스트레스를 정의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혼여성이 경험하는 스티그마를 역동적 상호작용의 스트레스로 보고자 한다. 또한, 사람들이 사회화된 의식에 따라 이혼여성에게 일상적으로 흔히 스티그마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대처행동에 관한 시각 : 성향 vs 상황

인간의 인지적 도식 내에서 스트레스라는 사건으로 규정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의 반응을 하게 된다. 이를 대처(coping)라고 한다.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처의 범위를 반사적 행동까지 포함시키느냐, 의식적 행동까지로 제한시키느냐에 따라 대처의 개념 규정은 달라진다. 대

처행동을 ‘직접적,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보이는 모든 반응’이라고 정의할 경우, 대처행동은 혐오적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 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 반사적 행동까지 포함하게 된다(Silver 등, 1980). 그러나 본능적, 반사적 행동까지 대처행동에 포함하면 환경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모든 행동을 대처행동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처행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처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범위를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행동측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¹²⁾ (ibid:10).

이에 자아분석 연구가들은 대처행동을 심리역동적 시각으로 파악하여 방어 행동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대처행동에 관한 성향적 시각에 입각해, 대처행동이 개인의 인성특성이나 특질과 같은 개인적 성향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대처행동에 관한 성향적 시각에서는 대처행동의 성향성을 유발하는 개인의 인성특성이나 특징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첫째, 스트레스 상황 간 안정된 대처행동만을 강조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대처행동 반응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대처행동이 인성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셋째,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적 맥락, 사회적 지지망 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Lazarus와 Folkman은 1980년대에 자아분석 연구가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처행동에 대한 상황적 시각을 볼 것을 주장하였다. 대처행동에 대한 상황적 시각은 인지적 평가에 따라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성특성이나 특질 등 개인적 성향에 의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대처행동에 관

12) Lazarus와 Folkman(1984) 등에 의해 은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또는 목적적 반응으로 대처행동을 국한시키고 반사나 자동적인 반응은 대처행동의 범위에서 제한시켰다. Lazarus와 Folkman(1984:10)은 대처를 의도적 반응으로 제한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대처행동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한 상황적 시각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맞닥뜨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나타나는 의식적인 모든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규명하려 하였다.

한 사건이 스트레스라고 규정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반응을 하는데 이를 대처라고 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 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 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 대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대처행동이다. 반면,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신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거나 경감 및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에 대해 이혼여성 개인의 성향보다는 상황의 시각에 입각한 대처행동을 보고자 한다.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의식적 행동적인 모든 반응으로서의 대처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스티그마에 대한 평가와 대처 경험의 다면화된 현상을 살필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제 3 절 이혼여성 관련 연구

1. 이혼여성에 대한 경험연구

본 절에서는 이혼여성과 관련된 경험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학문적 논의 중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지를 규정하였다. 이혼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섯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이혼 전 이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탐구이다(김수정 외, 2001; 이경성, 2001; 이경희 외, 2015). 해당 연구들에서는 이혼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혼여성들이 왜 이혼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였다. 이혼의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혼여성

들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 부부간 의사소통, 결혼만족, 결혼관계의 개입과 투자,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주변 사람들의 영향 및 장애요인 등을 예측요인으로 설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 수준이지만 결국 실제 이혼 시도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실제 이혼 시도나 계획에 중요함을 밝힌다(이경성, 2001). 다음으로,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보는 연구들(김수정 외, 2001; 이경희 외, 2015)은 이들이 남편으로부터 무시, 위협, 폭력 등을 당하거나 자신은 원하지 않는 이혼을 당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으로 고투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혼 과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둘째, 이혼여성을 한부모 여성가구주로 규정하면서 이혼 후 겪는 경제적 빈곤과 양육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김혜영 외, 2008; 정상규 외, 2010; 이현송, 2008; 소현숙, 2014; 신희정, 2010; 오선순, 2001; 정미숙, 2007; 정현지, 2004; 황은숙, 2005; 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이들은 결혼가족에서 이탈한 이혼여성들이 한부모 가족의 생계부양자와 자녀돌봄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걸 지적하면서 역할의 과잉을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을 문제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이혼여성들은 배우자의 결별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노동시장구조에 편입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을 벌어야 하지만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는 여성들의 삶의 기회를 제약한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저임금 임시직에 국한하여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결혼가족에서 경력단절로 인해 직업시장에 맞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를 혼자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이혼여성들은 그래서 교육을 통해 자기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상용직근로자로서 취업도 어렵다. 이 연구들에

서는 양적/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혼여성의 이혼 후 인적자본의 미흡, 고용률, 빈곤상태, 주거빈곤, 공적부조 의존비율,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혼여성의 물질적 지원과 사회적 양육의 분담을 제언한다.

셋째, 이혼여성의 결혼가족에서 이탈 후 이혼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살피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이혼여성 자체가 이혼이라는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반응 및 의미 등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김옥경, 2012; 김지혜, 2008a; 김지혜, 2008b; 김순남, 2009; 박형숙 외, 2016; 전은주, 2001; 송옥, 2013, 최은화 외, 2010). 이혼여성들은 결혼가족에서 벗어나 이혼을 겪으면서 여러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 그들은 과거 삶을 생각하면서 상실, 위축을 느끼기도 하고 전 남편에게 분노감,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인기피증이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원망하거나 억눌린 감정 등을 투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불행한 결혼을 벗어나기 위한 차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혼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김지혜(2008b)는 이런 과정을 ‘의미찾기’라고 명명하면서 이혼을 한 여성들이 해당 과정을 꼭 거쳐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혼의 선택이 자신의 책임은 아니었다는 걸 내재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위의 사회적 시선과 편견은 이혼여성들이 인식하는 변화를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혼여성들은 위축된다. 그러다가 연구자들이 어떠한 계기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혼여성들이 자존감 회복이나 극복, 의미 찾기 과정을 한다고 기술한다. 이혼여성들은 자기사랑과 용서,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이혼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이혼 전과 후에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당당함을 이혼여성이 갖기, 이혼여성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마련을 제안한다.

넷째, 이혼여성이 이룬 가족과 자녀의 양육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이혼가족과 모-자녀 관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김

경순, 2010; 김혜선 외, 2010; 천혜정 외, 2007). 해당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 탄력성 등이 높을수록 이혼여성들의 가족 적응, 자녀적응, 부모 효능감 등 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혜선 외(2010)는 이혼한 한부모 여성이 자녀를 기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모성 이데올로기에 지적을 한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가사와 양육은 여성이, 사회와 경제활동은 남성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공고히 하는 개념이다. 가족과 사회를 분리함으로써 가족의 영역에 속해있는 여성들에게는 재정적 대가를 주지 않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재정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조혜정, 1981). 이런 사회적 맥락이 남성에게는 가장이라는 위치를, 여성에게는 무조건과 무급으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정립하여 가장 훌륭한 여성의 표본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내었다(박혜란, 1987). 그리하여 남성은 자녀양육보다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어머니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역할이 나뉘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자녀의 욕구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김인지 외, 2005). 이러한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혼여성들은 자녀의 양육이 버겁고 자녀를 반듯이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낡은 처방이 아닌 여성의 삶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을 넓히고 한부모가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공자의 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과 편견의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나 자립의지에 관련된 연구이다(이재은, 2009; 지명원, 2001). 이혼여성들의 전화적 접촉, 직접 방문 같은 심리적 지지가 높을 때 이혼여성들의 정신건강 및 자립

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혼여성들의 심리적 지지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이혼여성의 생계, 양육, 심리, 정체성, 이혼에 대한 의미,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혼여성들 경험의 근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기초 아래 이혼여성이 이혼을 선택한 후에 펼쳐지는 삶들은 다른 일반적인 삶들에 비해 특수한 상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정상 규범을 정해놓고 이탈된 것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의 기혼여성과 이혼여성 간 삶의 인정 차이, 결혼해체를 둘러싼 여성의 선택과 관련된 인정, 개체 간 삶에 있어서 위계 등이 이혼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의 밑바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스티그마, 그리고 사회적 스티그마를 내재화시킨 자기 스티그마, 해석, 대처 등을 주목하였다.

2.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 관련 연구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국내와 국외를 구분한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재현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내의 경우는 가부장 가치관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이 이혼여성과 관련된 스티그마와 연결되어 있다면 국외의 경우는 이성애 문화와 무슬림 문화 등이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여성들의 스티그마-대처 경험 관련 연구를 탐색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편견, 차별,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했던 현상이 정체성, 돌봄, 빈곤, 배제 등으로 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로서의 스티그마 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의 현상에 대한 스티그마 개념의 면밀한 분석을 실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스티그마’ 경험에 대한 탐구를 면밀히 하지 않았지만 각각 연구에서 다루는 이혼여성의 경험 중 스티그마와 유사한 경험을 본 절에서 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원가족, 자녀, 직장 동료/상사, 기타 주요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티그마 양상으로 재구성해하여 제시하였다. 이혼여성의 경험을 관계망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는 까닭은 각각 관계망에 따라 스티그마와 대처의 경험이 다르고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원가정

이혼 후 원가정은 여성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원가정에서 이혼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오히려 스티그마를 경험하기도 한다. 원가정은 전통의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며 남성이 생계부양을 해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탈한 이혼여성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한다(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송옥, 2013).

원가정에게 내재된 가부장적 가족제도 통념에 따라 여성을 남성가장에 의존하는 가구 구성원으로 보며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남성생계부양자가 없는 이혼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혼여성의 빈곤상태가 정상가족에서 이탈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보면서 비난했다. 따라서, 원가정들은 경제력이 없는 이혼여성을 무시하거나 친밀함의 관계에서 밀어냈다. 이 때, 이혼여성들은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원가정이 주는 스티그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결국 스스로를 분리하며 거리를 두고 관계망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 때 이혼여성들은 이혼으로 스티그마화 되는 경험이 누적되어지면 관계 내에서 ‘거부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거리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김정현, 2012). 기존 연구들의 이와 같은 이혼여성들의 태도는 자기 스티그마와 관련되는 현상으로 이혼에 대해 비난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원가정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거리를 두는 대처이다.

이혼 후 이혼여성의 부모들이 이혼여성을 수치스러운 자식으로 취급하면서 타인에게 이혼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가족의 체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은 부모에게 “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손현숙, 2007; 송옥, 2013).

(2) 자녀

이혼 이후 여성이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은 돌봄노동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 이혼여성의 대다수가 돌봄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연구들은 이혼여성들이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김나희, 2003; 김지혜, 2008a).

주변 사람들은 이혼여성들이 가족의 정상성으로부터 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여성을 ‘해체된 가족’, ‘결손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가둠으로써 한부모 가족은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했다(김정현, 2012; 이순영, 2000). 따라서 이혼여성들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직장에 들어갈 때 자신이 이혼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오히려 이혼한 여성은 자신의 욕구보다 자녀의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다. 이혼여성들은 자녀가 잘 되었을 때만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신을 강한 보호자로 정의하면서

목표는 아이들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박형숙 외, 2016). 이혼여성은 가정
이 깨진 것으로 인해 아이들을 나쁘게 돌볼 것이라는 사회적 패러다임
내에서 노동 시장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돌봄 노동을 우선시 한
다고 했다(김정현, 2012). 이혼여성들은 엄마로써 모델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드러내면서 모성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성은 출산을 통해 ‘엄마’가 되는데 ‘한국 엄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엄마’의 모성이라는 특징적 구성과정
(construction)을 거치게 된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결혼을 하면서 아이
를 출산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자아에 “어머니답게”라는 정체성을 부
여한다. 이 정체성은 ‘자녀는 엄마의 페르조나’가 된다(변윤언 외,
2010). ‘자녀는 엄마의 페르조나’는 엄마가 된 여성은 ‘엄마’로서의
자아를 의식세계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 엄마의 자아에서 자녀와 관계
는 인생 그 자체가 되고 ‘자녀’를 자신 삶의 주체로 둔다. 그 결과 자
녀는 엄마라는 자아의 ‘페르조나’가 된다. 그리고 페르조나로 존재하
는 자녀는 생애기간 동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엄마는 그 과
정에서 과도하게 개입한다. 따라서 자녀가 “잘 크는 것”이 엄마도
“잘 풀려 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여 자녀의 상태와 노력 등
을 엄마와 동일시하게 된다. 반대로 “자녀가 받는 비난”은 엄마 또한
“자기가 비난을 받는 것”으로 인지한다.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혼이라
는 스티그마가 결손가정¹³⁾이라는 맥락과 함께 드러나면서(허정은, 2002)
자녀의 상태를 자기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였다.

이혼여성들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제대로 크지 못 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스티그마가 현실로 드러날 때 당황하였다(김혜선 외, 2008; 김혜
선 외, 2010). 자녀의 일탈이나 비행행동에 대해 돌봄의 전담자로서 ‘중
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난 받을 때(김정현,
2012) 이혼여성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당황하면서 사회적
으로 부여받은 스티그마를 순응했다. 그러면서 점차 타인에게 의존하게

13)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있는 가족을 정상가족 또는 완전한
가족이라고 보고, 한부모 가족이나 양친 부재 가족을 비정상가족, 부족한 가족이라고
규정하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되고 자신의 이혼상태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이혼여성은 정상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등치시켰다.

(3) 직장 동료/상사

비교적 많은 이혼여성 연구들이 이혼여성에 대한 직장 내 스티그마에 대해 다루고 있다(김정현, 2012; 손현숙, 2007; 황은숙, 2007). 이혼여성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기에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직장은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황은숙(2007)은 이혼으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찍히고 이혼녀를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하였다. 이혼을 했다고 하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 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로 스티그마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이와 같은 스티그마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남편이 있는 척을 한다고 했다. 또한, 취업에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 고용이 되지 않거나 고용이 되더라도 직장 내 구성원들에게 받는 스티그마가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 모두 이혼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혼여성에게 이혼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혼여성이 불평등한 일을 겪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편견을 가진다(김지혜, 2008a; 김정현, 2012). ‘이혼녀=쉬운 여자’라는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혼여성들은 한 번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봤으니 건드려봤자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으로 직장 내 남성 직원의 성적 표상이 된다(손현숙, 2007).

한편, 성분절적이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이혼여성들을 ‘결혼가정의 여성 가구주’로 인식하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보호자를 상실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동정을 하였다. 이들의 동정에는 이혼여성에 대한 가치비하적 태도가 숨어있었다. 그래서 이혼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이 때, 만약 이혼여성이 위축된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혼여성을 비난하면서 직장 내 유대 관계에서 밀어내고 배척했다. 또한, 이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 것 같은 직장동료들도 중요한 기득권 공유 과정에서는 이혼여성을 제외시켰다. 반면, 이혼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상성에 대한 신념을 받아들이면서 가부장제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적 업적평가를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은 노동시장 안에서 자신의 노동능력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스스로 이혼을 주류사회규범에서 벗어난 걸로 판단하여 남편 없음은 무능하다로 같은 값을 매겨, 스스로 자신의 노동가치를 낮잡아 봄으로써 직장 내 구성원들로부터 노동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김정현, 2012).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 이혼여성들이 나타낸 대처 방식은 순응, 내면화, 회피였다. 이는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면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처는 직장 내에서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가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숨기거나 감당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그마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고 결국 이혼여성에 대한 부당한 스티그마는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다.

(4) 기타 주요 관계

기타 주요 맥락은 주로 사회적인 커뮤니티와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티그마와 대처 관련 경험이었다.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허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직접 경험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의 이혼과 나의 이혼을 구분하는 주변적 인식에서 피해 나갈 방도가 없다고 인식한다(옥선화 외, 2007)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험 아닌가’ 하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눈으로 보다가도 이혼여성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이혼과 관련지어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였다. 대다수가 이혼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혼의 원인을 당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혼여성들은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흉이나 허물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한 원망감, 무력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옥선화 외, 2007).

이혼이 때로 주위 사람과 단절을 가져오는데 이는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 때 사람들은 이혼여성의 이혼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가족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혼여성의 존재를 위기로 느낀다. 또한, 이혼여성은 친구들이 이혼 후에도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이해해줄 것을 염두하며 자신의 힘든 점을 토로하지만 친구들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서 위치를 잡하기 위해 이혼여성에게 자존감이 상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들은 결코 이 관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정 정도 친구와의 관계에 거리를 둔다 (손현숙, 2007).

또한, 이혼여성이 이혼 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내에서 사회적 관계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상가족신화가 내재화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혼여성은 홍보기의 대상이자 호기심꺼리일 뿐이고, 오히려 이혼은 여성의 개인적 성격, 동기, 기질 탓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특히 이혼을 가족을 지켜내야 하는 여성의 젠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했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혼여성을 ‘비정상’ 이고 열등한 존재로 스티그마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은 스스로를 정상성에서 벗어난 열등한 존재로 가치비하하고 ‘정상성의 일

탈’이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김정현, 2012).

2) 국외연구

이 장에서는 국외연구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여성들의 스티그마 경험과 자기 스티그마의 사례를 살펴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대처 경험을 참고하였다. 이혼과 관련된 스티그마의 양상에 대해 비교적 면밀하게 제시한 연구들은 Gerstel(1987)과 Konstam 등(2016), Newton-Levinson 등(2014)¹⁴⁾가 있다. 국외 연구는 한국의 가부장제도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문화와 달라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Gerstel(1987)은 80년대 미국에서 갓 이혼이 보편화 되는 상황, Konstam 등(2016)은 현대의 미국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이혼이 만연한 상황, Newton-Levinson 등(2014)는 에티오피아의 무슬림제도로 인해 성(sexuality)에 대한 통제가 강한 상황이다. 각 연구들의 상황과 맥락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 분석 결과를 그대로 드러낸 후 본 연구에서 주 연구문제와 관련한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분류하여 국외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외 연구 분석결과들과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유사한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기 위해 국외 연구들을 스티그마-대처 경험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내의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대처 경험과 관련된 독특성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Gerstel(198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관용이 특히 10년간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교묘한 형태로 조건적이며 관계적인 스티그마가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총 104명의 이혼집단(남성 : 52명, 여성 : 52명)을 인터뷰 하였는데 주요 결과로는 ① 이혼에 대한 비승인, ② 비난의 경험, ③ 사회적 소외 : 결혼집단에 의한 거부, ④ 동료와 의기소침화, ⑤ 자기에 대한 가치절하 등을 제시하였다. ① 이혼에 대한 비승인(disapproval)에서의 이혼

14) 해당 연구들은 이론과 방법론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외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의 현상을 참조하기에 유용하다.

선택에서 드러난다. 친구와 친족들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친구와 친족으로부터 반대한다. 이 때 이혼을 하려는 여성들은 “나쁜” 여자가 되는데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취진다. ② 비난의 경험은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A 부부가 B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A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B는 부부 둘 중 한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혼여성들은 부부 중 한 명은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한 명은 무죄인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혼 사유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잠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속성이 있다고 내재화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을 타인에게 설명할 때 그들 자신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야만 했다. ③ 사회적 소외 : 결혼집단에 의한 거부는 이혼여성들이 이혼 이후 이전에 교류하던 커뮤니티를 가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이 이혼 한 것을 보고 이혼을 선택한 자유로움을 옹기는 존재로 인식하여서와 사람들이 이혼여성들을 자신의 배우자를 빼앗아 갈까봐에 대한 우려,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다(사람들이 이혼여성들의 성적 유효성(availability)으로 인해 그들을 피하기까지 했다). Goffman(1963:5)의 “스티그마 이론”에 의하면 결혼집단들은 이혼집단들이 “사회적 질병”을 옮긴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질병의 요소는 선택의 자유로움과 성적 능력이었다. ④ 동료와 의기소침화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처음에는 이혼 관련 자조집단에 들어가 위로를 받게 된다. 같은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크게 위안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할지 이전 이혼경력집단에게 배운다. 그러나 이 효력은 약 1년 내만 괜찮고 1년 이상 2년이 넘으면 이혼 자조집단에 있는 거 자체가 이혼여성들에게 의기소침화 하는 기제가 된다. 이혼여성들은 이혼이라는 사건이 더 이상 결합으로 여겨지지 않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집단은 계속해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들을 지치게 하며 자존감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 관련 자조 집단에 거리를 두게 된다. ⑤ 자기에 의한 가치절하는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손상당하기 싫어서 이혼을 밝히

게 되는 사회적 집단에 시간, 거리 등을 핑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두면서 결국 다시 자신들에게 사회적 시선이 스티그마화를 하는 것에 무력해진다.

Konstam 등(2016)은 비교적 어린 나이(23세-32세)에 이혼을 경험한 9명의 이혼여성을 인터뷰 하였는데 공적 스티그마(public stigma)와 자기 스티그마(self-stigma)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주요 결과로는 ① 자기 스티그마 vs 공적 스티그마, ② 실패, 당황, 그리고 비난의 인지, ③ 종교와 스티그마, ④ 비담화(nondisclosure)와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 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의 스티그마를 드러냈다. ① 자기 스티그마(self-stigma) vs 공적 스티그마(public stigma)는 이혼여성들이 이혼의 스티그마가 잘못됐다는 솔직한 태도로 이야기하면서도 스티그마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행동의 비밀관성의 감정을 느낄 때 혼란스러워 했다. ② 실패, 당황, 그리고 비난의 인지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혼을 한 것이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식하며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큰 사건에 중지부를 찍은 것이기에 당황한다. 이러한 감정은 그들 자신을 이후 재혼 시 파트너가 되기에 잠재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자아비난을 하게 된다¹⁵⁾. ③ 종교와 스티그마는 특히 카톨릭을 믿었던 이혼여성들이 스티그마를 두려워하였다. 이들은 이혼이 종교의 신념상 죄악시 되기에 그들의 현 상태가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특히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혼한 개인에 대해 자기 자신이 더욱 스티그마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④ 비담화(nondisclosure)와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판단 받을 예측들이 그들이 스티그마화 될 수 있는 이혼을 숨기는 정보 통제 의 형태로 반응한다. 이혼여성들은 그녀들이 나쁜 선택을 했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까봐 자신들의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을 방어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관계 뿐 아니라 일을 할 때도 해당된다. ⑤ 이혼여성들은 아이가 있을수록, 주변환경이 대도시가 아닐수록 스티그마가

15) 이 중 일부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혼인 상태는 당황하게 하는 근원이지, 내가 당황을 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며 이혼과 자기의 스티그마 상태를 분리하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했다(Konstam 등, 2016).

심하다고 했다. 문화적 맥락 또한 스티그마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 사회의 미국 문화가 과거 전통사회보다 스티그마를 완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이혼 자체보다 이혼을 하게 된 경험 그 자체가 훨씬 스티그마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남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이혼을 한 사실보다 스티그마에 영향을 더 끼쳤다고 했다.

Newton-Levinson 등(2014)은 에티오피아의 Oromiya 지역에 사는 27명의 사별, 이혼여성들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들을 성적 능력(sexuality)과 결부되면서 스티그마화 되어지는 과정을 인터뷰, 표적그룹 토의(focus group discussion), 사회 지도(social mapping)로 연구하였다. 에티오피아는 특히 가부장 사회이고 무슬림 제도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악시 되는 사회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① 성적 능력과 스티그마, ② 스티그마로 인한 지지시스템의 영향(차별)로 나타났다. ① 성적 능력과 스티그마는 이혼여성의 성적 능력이 통제되고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며 지역의 다른 여성들은 이혼여성의 성적 능력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을 한다. 이들의 가정(assumption)은 남자가 없는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락을 쓸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남자를 찾는 여자’로 비취질까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야기 했다. 따라서, 그들은 과도하게 꾸미는 것을 경계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혼여성들을 이러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는 기혼 남성들은 이혼여성들을 피하게 되는데 이혼여성들이 이러한 냉대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 더욱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 된다¹⁶⁾. ② 스티그마로 인한 지지시스템의 영향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A. 사회적 지지, B. 경제적 지지, C. 건강 시스템이었다. A. 사회적 지지에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사는 기혼 여성들이 이혼여성들과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했다. 또한 성적 능력에 대한 스티그마 자체로 인해 남자들과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는 것도 두려

16) ‘한 이혼여성은 자신이 지역주민들에게 아침에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Newton-Levinson 등, 2014).

위했다. 또한 이혼여성들은 사회에서 부여한 의심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모임에 가지 않는 양상도 보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교류하는 정보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B. 경제적 지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보통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혼여성이 농지가 있더라도 육체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지를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노동력을 빌리거나 고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들 성적 능력에 대한 스티그마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사는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빌려주지 않는다. 또한, 시장을 가야 경제적 활동이 되는데 시장을 가려면 굉장히 멀기에 저녁에 혼자 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저녁에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구설수에 오를까 두려워한다. C. 건강은 이혼여성들은 가끔씩 저녁에 다닐 수밖에 없는데 혼자 밤에 다니므로 강간(rape)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는데 이들을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이혼여성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각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스티그마-대처 경험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 연구들은 주로 스티그마와 관련된 연구 분석 결과는 자세히 드러내고 있었지만 스티그마에 대한 과정 평가나 대처를 포함한 연구결과들을 면밀히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이혼여성들이 스티그마를 경험했을 때 그에 따른 평가 및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접근

1) 질적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이 어떠한 스티그마와 대처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그 ‘이면’으로 들어가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혼여성을 향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문헌고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에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상성의 일탈이라는 사회적 스티그마가 겹쳐서 그들의 경험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혼여성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여성, 가족에 대한 정상성의 일탈로 그들을 규정하며 여러 가지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본인이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스티그마’에 따른 ‘대처’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혼여성의 경험을 ‘스티그마-대처’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기술(description)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자료를 해체하고, 추상화하고, 개념화하고, 연관 짓고 해석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연구참여자의 ‘이면’으로 들어가고 종국에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김인숙, 2015:47-48).

둘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대처는 이혼여성이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여러 맥락과 매커니즘이 고려될 때에 하나의 현상으로

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대처를 분석적으로 다룰 수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맥락에 의존하여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양적 연구에서 맥락을 변수화하고 조작화하여 설명한다면, 질적 연구는 “맥락의 복잡성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포착” 한다(김인숙, 2015:51). 따라서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건하에서 ‘맥락’을 고려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은 후설(E. Husserl), 하이데거(M. Heidegger),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발전되어 왔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주어진 현상의 발생적, 구성적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의식 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신경림 외, 2004)이다. 현상학의 어원을 살펴보면 ‘스스로 드러냄’ 즉, ‘스스로 드러내는 대로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뜻한다. 그러한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현상학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남인, 2005)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은 체험에 관한 풍부한 기술을 통해서 그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포착하고 드러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런 종류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은 또한 내게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상학은 삶과 삶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 혹은 괴리라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이러한 현상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는 새로운 기술(description) 방법으로, 의식으로 경험한 현상¹⁷⁾을 인과적으로 설명하

17) 현상(phenomenon)은 ‘나타남’ 혹은 ‘나타난 모습’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은 ‘나타남’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현상학자들 사이에서 현상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후설의 경우 현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려 하거나 어떠한 전제를 가정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고 연구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다(홍현미라 외, 2008).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핵심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이남인, 2005). 이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과 판단의 모든 복잡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고,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연구대상을 파악하고 도출 수 있다(김분한 외, 1999).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다. 후설은 인간을 이해하는 보편적 구조를 ‘자연적 태도(The Natural Attitude)’라고 하였는데, 우리 일상세계에 존재하는 상식적 사고를 의미한다. 후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는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이해 이전의 상태, 오염되지 않는 그 자체의 주관적 경험을 파악(서미경, 2008; 강향숙, 2013에서 재인용)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현상학적 탐구의 방법적 토대로 후설이 제시한 것은 “현상학적 판단 중지¹⁸⁾ 및 환원¹⁹⁾의 방법”, 그리고 “본질²⁰⁾

이 본래 모습 그대로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뭔가가 ‘자신을 내보여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에도 공통적인 것은 ‘현상’을 실제 모습과는 다른 단순한 ‘보임새’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현상학에서 ‘현상’은 가상이 아닌 참모습을 의미한다(박승억, 2007).

18)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삶속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연적 인과관계 틀 속에서 있다라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모든 판단을 미루는 일이 바로 판단중지이다. 경험과학이 올바른 학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엄밀성, 다시 말해 사태적합성을 지닌 엄밀학이 되어야 하는데, 경험과학이 사태적합성으로서의 엄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사태 자체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태 자체로 우리 사건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태를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선험입견에 대한 현상학적 판단중지가 필요한 이유이다(이남인, 2005).

19) 현상학적 환원은 날마다 접하는 삶과 관습적인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삶과 이해를 그 자체로 알 수 있는 또렷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이해 자체에 대해 찬찬히 살피거나 잘 따져보고 스스로를 돌이켜 부족함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일을 뜻한다. 즉 연구자가 이미 있는 모든 종류의 편견이나 전이해를 일시 중단하거나 괄호로 묶어내려는 노력이다. 모든 체험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항상 우리에게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성적 혹은 무비판적, 전반성적 태도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게 한다. 이러한 의미는 적극적인으

직관의 방법”이다. “현상학적 판단 중지 및 환원의 방법”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수집될 자료와 관련해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선입견에 대해 판단 중지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채색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더 나아가 체험연구를 통해 어떤 체험의 사실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구하고자 하기 위해 본질 직관²¹⁾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남인, 2005).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현상학이 사회과학의 질적 방법의 연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지향을 쫓아 현상이 포함하는 반성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해석학적 현상학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현상의 본질들을 기술하는 일에 보다 초점을 맞춘 본질주의적 혹은 기술적 현상학(이근호, 2007)은 현상학의 다양한 방법론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현상학의

로 그것을 찾고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요청하게 되며,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체험이 담고 있는 의미 혹은 의미 구조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환원은 본디 상태로 돌아감이며 우리가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갖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약한 믿음과 오해와 얽힌 지식을 괄호쳐내는 것 뿐 아니라, 만일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가진 가정 정립된 형식의 얇(예컨대 과학)조차도 확신 없이 의심을 품은 눈으로 보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완전무결하게 편견을 제거한 상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다르게(새롭게) 보려는 노력이며, 연구참여자들의 관점(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세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뜻한다(이근호, 2007).

- 20) 후설의 경우 본질은 그 어떤 한 무리의 대상들을 바로 그러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군의 대상들이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한다면, 바로 그 대상들을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하도록 해 주는 것이 그 대상의 본질이다. 이 경우 이 대상들의 본질은 우리가 “인간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질은 무수히 많은 개별적인 대상들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이남인, 2005).
- 21) 본질직관이란 바로 그 어떤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대상에서 출발해 자유변경을 통해 그 어떤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개별적 대상을 상상 속에서 산출해 나가면서 저 모든 개별적 대상들에 공통적인 보편적인 속성으로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후설은 『경험과 판단』에서 본질직관의 중요한 세 단계로서 1) 다양한 변경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들을 모두 살펴나가는 과정 2) 지속적인 일치 속에서 이 모든 변경체에 공통적인 요소를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과정 3) 차이점들을 배제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하는 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남인, 2005).

대표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가 미국 심리학에서 순수 현상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이다. Giorgi의 심리학적 현상학(Psychological Phenomenology)이자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경험의 의미, 특히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험에서 심리학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Giorgi는 현상학에서의 현상을 ‘그것 자체로 현존하는 그대로, 의식에 대해 현존하는 것(which presents itself to consciousness precisely as if presents itself)’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Giorgi, 1985/2004), 이러한 현상은 기술(description)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기술은 어떤 일반적 원리도 전제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상태)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현상학이 기술적 방법을 쓰는 이유는 검토되지 않은 어떤 가설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무전제성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다(박승억, 2007). 이와 같이 Giorgi(1985)에게 있어 현상학은 현상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현상이 우리의 체험 세계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바 그대로 탐색하고 기술하려는 기술적(descriptive) 방법론이다.

이러한 Giorgi의 방법론은 발견 지향적 방법이며, 예기치 못했던 의미들의 출현까지도 포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연구자에게 요구한다(이근호, 2007). 또한 다음과 같은 탐구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이기연, 2004). 첫째,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 세계에 대한 ‘감정이입적 몰입’이다. 이는 연구자 스스로 연구참여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능한 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속도를 늦추고 사색하기’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대하여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를 위해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황의 확대 및 확장’이다. 이는 연구현상의 의미가 충분히 확대되거나 확장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세계에서 가장 사소한 세부사항도 연구자에 의해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넷째, ‘믿음의 중지 상태와 강렬한 관심의 채택’이다. 연구자는 처음에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감정

이입의 상태로 연구참여자에게 몰입하지만, 이러한 초기 융합을 깨고 새로운 반성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발생, 관계,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으로부터 그것의 의미로의 전환’이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사건이나 사실에서부터, 그 의미와 그런 희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경험된 상황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Giorgi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연구 대상인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description)을 보여주기 위하여 해석학적 현상학과 구별되는 기술론적 현상학의 4단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Giorgi, 1985/2004). Giorgi가 제시한 4단계의 첫 단계는 원자료(Raw Data) 전체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술 전체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연구자는 기술된 전체 내용의 의미 파악을 위해 온전히 전사된 기술들을 읽는다. 이때, 최대한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된 일반적 의미를 명시화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의 선경험이나 선이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를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고 결말을 확인한 후 다시 기술의 첫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여러 번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내용을 의미단위(meaning unit)로 구분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보고자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속한 학문적 관점으로 문장의 의미단위를 구분한다. 이러한 의미단위의 구분은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의 전환으로 일어난다고 보여지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기술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여 현상학적 환원을 하고 기술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다가 의미의 전환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을 긋고 표시한다. 이때의 의미단위는 문장이나 문단의 단위에 따른 문법적 표시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단위의 수립 과정은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천적(practical) 과정으로 그 객관성을 입증 받는 것은 의미단위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는 변화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 단위를 가장

근접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강조하여 참가자의 일상적 표현을 연구자가 속한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가지고 의미단위들로 돌아가, 의미단위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학문적 통찰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학문에서의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의미단위를 전환한다. 이때, 보고자 하는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미단위들은 중요한 의미단위로서 보다 강조한다. 이 단계는 원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로,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의미단위의 전환을 위한 자유변경의 방법(Method of Free Imaginative Variation)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이때 각 의미단위들의 진정한 에센스를 찾기 위한 질문을 한다. 이 단계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외적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구조²²⁾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연구대상자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현상의 일반적 구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전환된 의미단위라는 형태 안에 포함되어진 모든 데이터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를 공식화해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일반적인 구조로 표현한 후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구조의 문맥에서 이를 다시 살펴본다.

2.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주로 면담을 통해 수행되었다. 면담을 바탕으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를 범주화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찾았다. 제보자들과의 만남, 사건, 인터뷰 등을 글쓰기를 통해 정리하였다.

22) 구조는 무엇이 같은 유형의 일련의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인 본질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구조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혹은 유형화 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현상에 대한 정의가 포함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나 관계들을 의미한다. 구조는 만일 주요 구성요소가 제거되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갖는다(Giorgi 등, 1999; 강향숙, 2013에서 재인용).

1) 제보자 선정

연구할 집단을 확인하고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제보자를 활용한 다. 연구 제보자들은 연구자를 연구할 집단으로 이끌어 줄 안내자이다 (Creswell, 2013). 40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살피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례를 풍부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접근을 위해 해당 연구자가 이전에 현지조사를 하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이혼여성들과의 만남을 시도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는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연구참여자가 추가 모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군 선정 외에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알게 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소개받았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이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제도 및 구조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이 어떻게 주류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이혼여성을 밀어내며, 이러한 스티그마에 대한 이혼여성의 대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찾고 이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40대의 이혼여성 5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혼여성을 둘러싼 스티그마와 대처라는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경제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인 사람부터 자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까지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수준을 다양하게 했다. 또한, 이혼 여성과 함께 사는 자녀의 수도 1명에서 3명까지 있는 사람도 있으며, 이혼도 합의이혼과 법적이혼을 한 사람을 포함시켰다. 이혼여성들의 이혼 후 기간도 1년 반인 사람부터 10년까지로 이혼 후 가지는 기간의 다양성 또한 확보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스티그마와 대처라는 부정적 경험을 주로 묻고 있으므로 연구참여자가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발화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본 연구참여자들 5명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의 경험과 이혼 후 사람으로부터 받은 시선, 생각 인터뷰 과정에서 가감 없이 언어로 표현해주어 이혼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참여자를 연구에 더 포함시키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이혼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에 연구에 더 많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웠으며, 자신을 이혼녀라고 밝히며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있었으나 그녀는 별거상태였을 뿐 실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어서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용이하게 연구참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H시에 거주하는 이혼여성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이혼여성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한부모 가족 단체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단체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여성이 개인 정보를 드러내기 원치 않을 거라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이혼여성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는데 연구자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2년간 현장조사를 나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의 부모 중 이혼여성의 정보를 주요 정보제공자인 센터장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H시에 위치하였으므로 이용아동의 부모들도 거의 H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라포 형성에도 용이하고 그들 경험을 현상적인 부분이 아닌 이면까지 보기 위해서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보다는 오랫동안 관계를 만들어온 곳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쉬울 거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40대 이혼여성이다. 이들은 1970년에 태어나 1980~1990년 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 참여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세대이며, 여성으로서 여권신장의 흐름을 경험하고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세대로 알려져 있다(손현숙, 2007).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이혼이 흔해지는 사회의 변동을 경험한 세대이며 전통적 결혼관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배운 교육

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집단이라고 여겨졌다. 또한, 40대²³⁾의 생애발달단계는 생리적 변화,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자신의 성과 남편, 자녀, 시댁 등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자신의 직업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껏 해온 수행을 돌아보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기존 생애발달 단계와는 다른 생애 발달단계를 거친다(김지혜, 2008a). 이들은 시댁과의 관계가 끊어져 시부모에 대한 부양이 적어지는 대신 친정 부모와의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모-자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며 부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과업이 생긴다. 그리고 결혼가정보다 이혼 후에는 돌봄보다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에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기타 사회 관계 영역에서도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시각으로 인해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ibid, 174-175). 본 연구에서 이혼여성은 가족 중심 사회의 행해야 하는 과업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다수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이 선택에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혼여성도 이혼 전까지는 가족 중심 사회의 윤리와 규범에 맞게 살아보려 노력했던 사람들로 그러한 가치관이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인지 도식과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겨져 40대 이혼여성을 본 연구에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그마에 대한 다양한 대처 경험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질적 연구의 특성상 자료수집이 들어가기 전까지 연구자가 각 표집 범주에 고루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용환(1999)은 확률적 표집보다는 준거적 선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준거적 선택은 연구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적 표집과는 다르다. 표집은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선택은 연구자가 현지인과 상의 또는 협상을 하면서

23) 김지혜(2008a)의 연구에서는 이혼여성 발달단계 중 중년기를 40-59세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분에 따라 40대 이혼여성을 중년기의 여성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생애 발달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한다. 표집의 목적은 사례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례로 전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이때는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 기준으로는 국내연구들을 참고하여 주요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였는데 원가정, 자녀, 직장동료/상사, 기타 주요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원가정, 자녀, 직장,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있는 또는 있었던 사람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혼여성에게 가해지는 복합 스티그마를 살펴보는데 그 중 연구참여자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게 스티그마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A의 경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C 또한 저소득 계층으로 아이의 방과후 교실 참여 지원비를 받고 있었다. B은 보험업을 하고 있어 많은 소득은 아니나 정기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었다. 그러나 딸 두 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D, E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따로 받지 않고 있지는 않았다.

〈표 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	연령대	직업	결혼 기간	이혼 이후의 기간	자녀	소개경로
연구참여자 A	만 44세 (1973년생)	회사 정리/ 창업준비중	10년	법적이혼:7년	3명(아들 1명/16살, 딸 2명/13살, 4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소개
연구참여자 B	만 45세 (1972년생)	보험영업	20년	법적이혼 : 3년 사실이혼 : 1년 반	2명(딸 2명, 19살, 16살)	연구참여자 A 소개
연구참여자 C	만 42세 (1975년생)	고깃집 아르바이트	10년	법적이혼 : 8년 사실이혼 : 3년	1명(딸 1명/11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소개
연구참여자 D	만 44세 (1973년생)	수영강사	11년	재판이혼 과정 : 1년 반 사실이혼 : 1년 반	2명(아들 1명/10살, 딸 1명/13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소개
연구참여자 E	만 44세 (1973년생)	카페운영	8년	법적이혼:10년	1명(딸 1명/17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소개

3) 자료 수집

현상학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관점으로 그들의 체험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현장의 언어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접(interview)를 통해 이들의 이혼여성으로써의 스티그마, 평가, 대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적 기술을 통해 중심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성된 스티그마, 평가, 대처 경험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접 지침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얽매이기보다는 인터뷰 과정에서의 원활하고 꼼꼼한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면서, 개방적인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4월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 연구참여자별로 2회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인터뷰 1회당 평균 60~12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면접에 집중할 수 있고 녹음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면접 장소는 주로 H²⁴시의 E 지역아동센터 상담실과 연구참여자의 자택, 연구참여자의 자택 근처의 세미나실을 갖춘 카페 등이 활용되었다. 인터뷰 이외에 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한 보완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첫 인터뷰를 통해서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로 들어가기 이전에 라포 형성에 주력하였고, 또한 이혼 후 각 관계망(원가족, 자녀, 직장, 기타 관계)에서 경험한 스티그마, 대처 경험에 대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주제인 스티그마, 대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면담 전에 인터뷰 참여자들과 만나게 된 계기, 경로, 시간, 첫 느낌과 마지막 인터뷰 상황 등을 관찰일지에 매번 적으려고 노력했다. 주요 인터뷰보다도 인터뷰 전 후 상황의 기술은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연구참여

24) 연구자가 오랫동안 참여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도시이다. 연구결과에 지역과 스티그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를 가칭 H시로 지칭한다.

자의 맥락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되었고, 참여자의 이야기 중에서 스티그마 및 대처와 관련된 경험은 후속 질문을 통해 더 자세한 경험을 이끌어냈다. 또한, 각 연구참여자의 면담 중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하여 해당 경험이 있는지, 이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렇게 녹음된 자료를 그대로 전사(transcribe)하여 자료화하였다. 이때, 면접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침묵 등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도 기록하면서 인터뷰 과정의 생생함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나 어법상 맞지 않은 표현도 그대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 면접 과정에서 현장 노트에 연구참여자의 감정과 태도 및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및 연구자의 느낌 등을 면접 중이나 면접 후에 작성하였고 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배경 사항, 사회적 스티그마, 자기 스티그마,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을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혼, 스티그마나 대처 등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부정적 경험을 질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질문 구성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y Method)에 따른 자료 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그 방법은 네 개의 필수적인 단계를 포함한다(Giorgi, 1985). (1)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 기술 내용을 읽는다. (2) 일단 전체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면 연구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으로부터 “의미 단위”를 구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그 텍스트를 철저

하게 읽는다. (3) 일단 “의미 단위”의 윤곽이 파악되면 연구자는 모든 의미 단위를 검토하고 그것 속에 포함된 심리학적 통찰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것은 고려 중인 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의미 단위”의 경우에 허용된다. (4)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를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일관적인 진술로 통합한다.

연구자는 첫 단계로 전체 의미 획득을 위해 기술 전체를 읽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녹음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고, 전사된 내용을 2-3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 나갔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기술 내용을 읽으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들을 제외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의미단위들을 자유변경의 방법을 통해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확립된 학문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거나 일상적인 용어 중에서 현상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하여 전환하였다. 이렇게 변형된 의미 단위들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스티그마 경험은 13개의 하위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를, 대처 경험은 6개의 하위구성요소와 3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었다. 이렇게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은 정보제공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연구의 목적 공개(혹은 비공개)하기, 사례연구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공유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연구자가 개인적 경험들을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등이다(Creswell, 2013). 나는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면담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그만 둘 권리, 연구의 주요 목적과 자료 수집에서 사용되는 절차들, 응답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언급,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받을 알려진 위험에 대한 진술,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그리고 참여자들이 서명하고 날짜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동의서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대처’ 인 만큼 이혼여성들은 본 인터뷰를 통해 과거 경험 중 부정적 경험을 떠올릴 기회가 많다고 여겼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부정적 경험을 말로써 내뱉을 때 경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게 되는 ‘환기’ 경험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 후 소감을 물을 때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고 하였고 “나중에 꼭 논문을 주라” 고 요청했다.

6)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타당성(validity)은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며,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연구에서는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다른 용어, 예컨대 진실성, 엄격성, 엄밀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김미옥, 2007). 일부 질적 연구자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실제(reality)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엄격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기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Smith, 1984), 질적 연구의 타당성, 엄격성, 엄밀성, 진실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관심화 되어왔고 학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²⁵⁾. 본 연구에서는 Lincoln(1995)이 사용하는 엄격성이라는 단어로 연구를 판단하고, 연구 공동체(inquiry community), 위치성(positionality), 공동체(communitiy), 목소리(voice), 비판적 주관성(critical subjectivity), 상호성(reciprocity), 신성함(sacredness)²⁶⁾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Lincoln(1995)은 거의 모든 기준이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이 기준들이 좋고 나쁜 연구를 가르는 완벽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먼저, 연구 공동체(inquiry community)는 연구의 토론자(penalist), 독자(audience), 그리고 후속 연구 집단(follow-up work group)의 논평(comment)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연구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집단이 아니고 연구의 수행 형태나 경험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개정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 기준에 따라 연구 공동체에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수

25) 질적 연구의 질 판단 기준은 실증주의자 중 실증주의(positivist)/후기 실증주의자(postpositivist), 구성주의자 중 약한 구성주의와 강한 구성주의자로 나뉜다.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방법론에 상관없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후기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양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과는 별개의 그러나 유사한 일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러한 기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다만 질적 연구 또한 실증적인 근거, 일반화 가능성, 그리고 편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일반적인 동의가 있을 뿐이다(Hammersley, 1992). 구성주의 입장에서도 약한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엄밀성, 진실성 등 질적 연구의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협소하게는 연구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신뢰도, 타당도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의 실증주의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강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타당성의 모든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연구실천을 위해 타당성 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 연구실천은 인식론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윤리적·도덕적·실천적인 것으로 재정향화된다(이혁규,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 중 구성주의에서 연구실천의 입장을 널리 알린 Lincoln(1995)의 연구에 따라 본 연구의 질 확보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연구의 질 확보에 어떤 기준을 둔다는 것은 질적 연구의 강한 구성주의적 해체에 반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6) 엄격성의 기준 중 특권의 공유(Sharing the Perquisites of Privilege)가 있다. 특권의 공유는 연구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과 특권에 대해 연구참여자들과 공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논문이지만 이익과 특권에 관한 내용은 연구 후에 파급 효과이므로 연구의 엄격성 기준에 대해 제외한다.

행하는 대학원생 집단의 논평을 받아 연구의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도모하였다.

둘째로, 위치성(positionality)은 인식론에 근간한 것인데 오직 텍스트들은 그들의 맥락적 근거(contextual grounds)에 놓여 있어야 질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상호맥락적 대화에서 나오는 사회·문화적 텍스트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위치가 결정됨에 따라 통합되고 해체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연구로부터 나오는 분석 자료의 목차와 배치, 텍스트 단어와 문장, 문단 상의 배치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맥락상의 의미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로, 공동체(community)이다. 이 기준에서는 질적 연구를 하는 과정이 학계의 공동체와 정책 입안가들의 수행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community)에서 수행되는 목적을 아는 것이다. 이는 조용환(1999)이 명명한 “현장의 질서”와 같은 연결 선상에 있으며, 그들이 사는 방식(the way of living)은 그들을 아는 방식(the way of knowing)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목하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판단하지 않으며 현장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맥락과 현상을 파악하였다.

넷째로, 목소리(voice)다. 이 기준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실천을 위해, 심지어는 실천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고(who speaks), 누구를 위해 말하고(for whom), 누구에게 말하고(to whom), 목적을 위해 말하는지(for what purposes)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대표성을 위해 침묵과 이탈(disengagement)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질적 연구는 이 부분에 집중하며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대처 경험이 주 연구 대상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혼여성의 언어에서 주체와 목적,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여 면담과 분석, 해석을 해 나갔다.

다섯째로, 비판적 주관성(critical subjectivity)이다. 비판적 주관성은 개

인과 다른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의식의 바뀐 상태로 들어가는 능력이나 “높은 질의 자각”을 의미한다. 비판적 주관성은 변형적 주관성(transformative subjectivity)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연구의 과정에서 자각을 강화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변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 표방하는 “낯선 것을 친숙하게, 친숙한 것을 낯설게(make the strange familiar, make the familiar strange)”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떠오르는 연구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현 상태에서 나아가는 해석학적 순환일지를 작성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한 고찰과 내가 가지는 고정관념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로, 상호성(reciprocity)이다. 상호성이란 사람들에 기반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특성을 의미하며 검증에 대한 조사에 모든 살아있는 집단(all live party)에 열려 강렬한 공유의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 분석, 해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해석이 연구에 참여한 집단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곱째로, 신성함(sacredness)이다. 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그리고 개인 간의 존중에 대한 조예 깊은 관심으로부터 발현한다. 또한, 관계의 측면에서 집합적이고 평등적인 측면에서 이 기준은 연구에서 행동의 연속체로 창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정의를 위한 연구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과정이 윤리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면담 시에 이혼여성들에 대한 연구자의 시선과 인식을 추적하며 인권적으로 민감성 있는 연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참여자 소개 : 이혼여성들의 결혼, 그리고 이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상황과 이혼으로 귀결하게 된 경험을 각 참여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A

A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다. 결혼 전에 서울에서 거주하며 사무실 경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H시에 친척이 있어 내려오게 되었다. H시에서 아파트를 얻어 친구랑 거주를 하던 A는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을 소개받았다. 아파트에 가끔 놀러오기도 하고 친구랑 어울리면서 남편과 친해졌고 교제를 하게 되었다. 이후 A가 임신을 하고 남편이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는 전 남편이 돈이 없는 집이었던 것도 배다른 형제가 너무 많았던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은 A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A는 내가 선택한 남편이었기에 스트레스는 있지만 감내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혼 과정에서 술집 여성들에게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배가 불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자 A는 남편과 대출을 받아 야식집을 열게 된다. 이때 시댁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시댁의 환경이 A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세탁기도 없는 집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A는 다른 6명의 식구들의 옷을 손빨래하다가 울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앞에서 욕은 하지 않지만 다른 식구들과 A 흉을 보기도 하고 A 신혼방의 대화를 몰래 엿 듣기도 해서 A에게는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 원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A는 시어머니를 피해 전 남편과 야식을 운영하는 곳에 딸려 있던 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다.

A는 야식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이 돌아갈 만큼의 수준만 소

득을 벌 수 밖에 없었기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야식집을 그만 두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기 위해 중간에 서울로 가게 된다. A는 서울에서 둘째를 낳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막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H시에서 공예로 방과후 사업을 운영해보자는 친척의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H시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나 A의 친척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A의 돈을 자신의 생활에 써 버렸다. A의 돈으로 자기 아파트를 계약해버린 친척에게 A는 화가 났지만 당장 집이 없었기에 H시의 친척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한칸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였다. 남편은 이 때 A와 떨어져 시댁에서 살았다. A는 2년간 켜돈을 모아 사업을 확장시키고 집도 사서 이사를 갔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지만 정작 나한테는 오는 게 없는 사업이었기에 A는 속앓이를 하였다. 한편 이때쯤 시댁에서 남편의 동생이 백혈병이 걸렸다면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어렵사리 얻은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서로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라고 했다. 그 때부터 시댁과 갈등의 골이 조금씩 깊어졌다.

그러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전 남편의 술주사였다. 전 남편은 A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도 술을 한 번 마시면 수습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남의 집 담을 넘거나 매일 싸우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 A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주요 사건은 자신의 친정집에 가서 전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친정 부모에게 무례하게 한 게 계기가 되었다. 합의이혼 후에도 남편은 A의 집을 계속 자기 집처럼 찾아오고 생활하였다. 자신도 다시 결혼을 한다면 전 남편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편이 집에 오는 걸 막지 않았다.

그러다가 친정, 시댁에 전 남편과 다시 합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편은 다른 여성들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 때 A의 따귀를 때려 A가 전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A는 전 남편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

였으나 전 남편은 ‘고소 할 테면 하라’ 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게 빨간 줄이 그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A는 전 남편과 다시 합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2. 연구참여자 B

B는 원래 H시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B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자 외할머니에게 보내졌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B는 어머니 자식인 반면 밑에 두 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두 동생을 편애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 편애는 편애를 넘어선 B에게 미움의 수준으로 느껴졌다. B는 그 당시에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B는 전문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다른 전문제 대학에 들어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B는 아버지에게 일단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머니 또한 자신 때문에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못 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 원가정을 벗어나기 위해 26살에 결혼을 선택하였다.

B의 남편은 결혼 과정에서 댄스팀 운영, 피트니스, 바(bar) 등 여러 사업을 운영했다. B는 남편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각 사업처의 매니저가 되어 남편과 사업을 함께 운영해나갔다고 한다. 남편은 항상 의존적인 사람이어서 세무서 처리나 사람관계의 갈등 처리를 항상 B에게 맡겼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가정생활이 어려워지자 B는 보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14년에 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법적(임의) 이혼을 했다. 남편과 같이 거주는 하고 있었고 명목상 경제적 이유로 법적 이혼을 하였지만 B는 이 때 이혼이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B는 선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결혼가정에서 같이 했던 사업의 명목이 B 명의로 되어 있어 빚이 모두 B 앞으로 잡혀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갚아주지 않으면 어려워지기에 이혼을 바로 선

택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B의 전 남편이 B를 폭행하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신고했고 아이들이 더 이상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B에게 강하게 주장했다. B는 자기 혼자였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이혼을 아이들이 강하게 주장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실 이혼이 이 때 이루어졌다.

인터뷰 초기까지 B의 전 남편은 B 명의로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B는 아이들과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인터뷰 중반에 B는 남편에게 아이들이 외할머니 집을 편안해 하지 않아 여자 애들인데 밖에 나가 있다고 설득하자 남편은 현재 집을 구해서 아파트를 나간 상태다. 그러나 전 남편은 여전히 이혼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B에게 ‘돌아와 달라’고 문자를 하거나 아이들 편에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상태다.

3. 연구참여자 C

C는 H시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E시에서 태어났다. 자신의 가정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개구리처럼 뺨어가지고 달달달 떨어 기절해서 이모가 데리고 갔는데 그 때도 (엄마가) 다시 온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자신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정 떨어져서 며칠은 있다 가족에게 돌아오겠지만 어머니는 자녀들 체육대회를 챙겨줘야 한다고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의 지속적 폭행 속에서도 엄마는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고 강아지가 아버지보다 좋은 상태이면서도 자녀들 때문에 참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C가 결혼 하고 딸을 낳을 무렵 돌아가셨다.

C는 E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H시로 나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바로 옷 매장에 취직하여 2년을 일 하다가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 무시하는 것 같아 전문대학을 진학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몇 년 간 쉬다가 H시 번화가에서 옷가게를 오픈하여 운영했는데 이 때 남편을 만나

게 되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집이 재력이 있었음을 과시했다고 한다. C의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말렸지만 C는 31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편 고향인 J시로 이사 가게 되었다.

알고 보니 C의 남편은 옛날에는 J시에서 손꼽을 정도로 부자여서 어렸을 때 개인 과외교사를 붙일 정도로 재력이 있었으나 C가 결혼할 당시에는 쫓딱 망해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남편은 이미 자신의 원가정에서 외면을 당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의 돈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결혼할 당시 친정의 원조를 받아 집을 구했다.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며 가정을 운용하고 싶었던 C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남편의 도박이었다. 결혼 전부터 몇 천 원짜리 복권을 하는 걸 알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스포츠 도박 사업에 몇 십 만원 수준에서 나중에는 하루에 800만 원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집에 차압 딱지가 붙어 경제적 이유로 결혼한 지 2년 만에 법적(임의)이혼을 했다.

C는 먹고 살아보기 위해 남편 지인에게 편의점을 임대받았다. 남편은 이전에 운수업을 했으나 꾸준히 하지 못하고 편의점을 도와준다고 했으나 그마저도 그만 두었다. 그리고 저녁에 편의점 관리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매일 나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계속 했다. C가 사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돈을 빌린 지인에게서 받은 협박 때문이었다. 그 지인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은 계속 도박을 하며 집에서 옷과 C의 차를 가지고 나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C를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딸 학교에 찾아가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때 C는 결혼가정을 유지하면 딸의 신변에 위협이 갈 것 같아 남편에게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손가락을 다 끊어야 (도박을) 끊을 것처럼 느껴졌던 남편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도망을 치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 간 비용까지 C에게 갚게 하였기에 도저히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C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편의점과 전셋집을 빼면서 위약금을 물었다.

자신이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남편 주변 지인에게 갚은 후 H시에 집을 얻어 이사 왔다. 이혼 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의 핸드폰이 C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전 남편이 소액결제로 200만 원을 빚을 저 일부를 갚아주고 지금은 교류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4. 연구참여자 D

D는 H시에서 태어났다. 학교 시절 성적도 좋고 뭐든지 잘 하는 D였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문계에 가지 못하고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할 뻔 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더 공부를 하기 보다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취직하여 어느 정도 돈 벌이를 하고 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여성 삶의 수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교 선생님이 D의 집에 찾아와 ‘이 아이는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아이다, 공부를 더 하면 대학에 가서 제 몫을 할 거다’ 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이후 D는 대학교의 체육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H시 인근에 있던 다른 시군청의 사무직에 취직하였다. 그 직장에서는 매년 마을 잔치를 여는 사업을 하는데 D는 그 사업에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자신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식사를 하시도록 챙겼는데 자신의 모습을 소탈하고 좋게 본 여자 마을 이장님이 중신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도 남자친구가 없으니 중신을 서 달라고 하여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친정에서는 남편이 9남매이고 D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으나 연애 6개월 만에 D는 결혼을 선택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D는 전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간섭이 심했다고 한다. D의 남편은 일주일에 2-3만 원을 주며 생활을 운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애들이 가끔 치킨 등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싶다고 할 때 몰래 사 줘야 할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D는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수영장 프론트 및 강사 일

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2014년에 남편이 D를 폭행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 2014년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친정 집 옆에 있는 투룸에 들어가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 기간 동안 D의 직장,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등을 쫓아가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아니면 매일 술을 먹고 다닌다’는 등 D가 부정확한 여자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이혼 사실에 대해서도 알리고 다녔다.

D는 재판 과정으로 1년 반을 보내고 재판이 끝난 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다. 현재 전 남편은 D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아이들과만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5. 연구참여자 E

E는 H시에서 태어났다. E 집안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참아야만 되는 게 그냥 받아들이지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위로 남형제만 넷인 가족은 남성우월주의 성향이 강했다. E는 이런 집안에서 말 잘 듣는 애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 영, 수를 합치면 전국 3~5% 이내 들 정도여서 서울대를 갈 정도였다. 그러다 친구 문제²⁷⁾가 생기면서 E는 고 2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이 사건을 겪고 나니 고 3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되고 스트레스로 엄청 아팠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해야 했다. 부모님은 이전에 공부를 잘했으니 화학과에 진학하여 약대로 편입을 하라고 했다.

E는 부모님 말씀대로 화학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대학의 화학과는 재미가 없었고 정말 하기 싫었다. 그 당시만 해도 휴학이라는 건 거의 없었기에 졸업을 해야 해서 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학교를 새로 가야 하나, 금전적인 건 어떻게 하나’ 등을 고민하던 어느 날 학교 안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27) E는 인터뷰 당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E는 ‘아! 한 번 유아교육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여 보육교사 교육원에 다녔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유아교육을 배운 E는 대학 졸업 전에 H시 내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3년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했다. 결혼할 때쯤 어린이집에서는 임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을 맡기로 했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아이를 임신하여 그만 뒀다. 그 이후로는 H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서 S시로 갔다.

S시에서 전업주부로 살게 된 E에게 남편은 매월 1일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항상 E가 몇 번을 사정해야 줬다. 그러다가 사업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할 때는 그 마저도 주지 않으려 했다. 남편은 기분에 따라 차를 1년에 4번도 바꾸었지만 매달 준 생활비는 딱 200만 원이었다. E는 이 200만 원에서도 적금을 들려고 일부 돈을 모아 놓으면 남편은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E의 모아놓은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는 막 돈을 쓰면서 E가 생활비에 사용하는 돈은 아까워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친절 돈을 갖다 쓰고 있었다. 남편이 ‘니가 알아서 해’ 라는 이야기는 친절에서 돈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였다. E는 이런 남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은 시댁이었다. E가 기억하기에 시댁은 정이 없는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었으며 누워 있는 애기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애는 쌍까풀 수술 해야겠다. 엄마가 수술비는 대’ 라고 어린 아이에게 평가를 하곤 했다. 그리고 병적으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시어머니는 어린 아이가 어지럽게 하는 꼴을 보지 못했으며 아이가 물건을 다른 곳에 갖다 놓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치웠다. 시댁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집이었고 남편의 여동생들과도 교류가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감내하던 E는 자녀가 네 살 때 너무 힘들어서 H시

에 왔다. 그 때 친정 어머니가 E를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자살위기의 E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의사는 E가 다시 S시로 올라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강력한 결로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얼굴이 다 타버리고 급박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때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3년간 약을 먹었다. 그런데도 남편을 볼 때마다 자신은 계속 죽어가는 느낌이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당시 직업이 없던 E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 때 전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렸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었으며 한 번씩 자녀에게만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E는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현재는 카페로 일을 전향한 상태다.

제 2 절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경험

1. 이혼여성의 선택과 책임의 연결고리

1) 이혼에 대한 친정부모의 불완전한 인정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선택한 후 원가족의 부모들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에서 부모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잣대로 이혼여성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혼여성들에게는 이혼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변하게 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길 원하지만 원가족의 부모들이 결혼 생활을 거치며 평생 동안 가졌던 가부장적 가치관은 그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부모 자신들은 평생 동안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있는 결혼가족의 유지를 위해 참아왔기에 이혼여성의 선택은 참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C-I-p.5).

연구: 그... 원가정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어머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요. 그러니까 이혼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를 가지게 되신 거 같으세요?

C :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도 저희 아빠가 좀 술 드시면 엄마를 많이 때렸어. 그러니까 오남매가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죠. 옛날 시골에는 거의 다 아빠들이 그랬던 거 같아.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를. 그니까 참고 살아야 된다는 여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여자니까 참고 살아라. 나도 이렇게 참고 살았다. (중략)

연구: 그러셨구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때 당시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 때 반응이 어땠을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C : 저희 엄마?

연구: 네.

C :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살아라.. 살아라.. 자기 엄마에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연구: 참았다.

C : 응.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 참아라. (II-p.14)²⁸⁾.

위 C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원가족의 부모가 가지는 가부장적 가치관은 ‘자녀가 있었기에 남녀가족을 지켰다’거나 ‘남녀 가족이 있어야만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 함께 있는 가족만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는 인식이 주류이기에 이혼을 선택하여 여자가 혼자 사는 가족 상황은 비일반적이고 비정상적인, 불편한 존재이다. 때문에, 이혼여성들이 이혼 후 친정 부모에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키지 않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피하거나”²⁹⁾(C-I-p.12), “받아들여주지만 항상 불편함이 있었기에 딸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E-I-p.23) 행동을 보인다. 이혼여성들은 부모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실질적 정체성과 부모가 자신을 보는 가

28) 인터뷰 직접인용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순서대로 ‘인터뷰 회차-인터뷰 녹취록 페이지’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연구자의 보충적 설명을 의미한다.

29) “ ”에 담겨 있는 표현들은 인터뷰의 내용 중 연구참여자들이 발화한 그대로의 말이다.

상적 정체성의 괴리를 느낀다³⁰⁾.

하지만 부모들의 사회적인 시선에는 완충 기제로써 존재론적인 자식으로서의 인정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이기에 이혼해서 돌아온 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E의 사례를 보면 E가 이혼을 선택한 것은 전 남편의 유책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E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남녀가 함께 있는 결혼가족을 탈피한 E는 결혼가족에 있는 여성에 비해 불행하고 남편과 경제적 책임을 나누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안쓰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공존한다.

연구: 그 아버님은 혹시 [이혼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E :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그거는 나도 모르는 부분인 거 같아. 그거는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아빠의 입장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아닐 거 같아.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야. 그냥 애가 뭔가 만약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보듬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 나는 내 부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나를 믿는 신뢰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였겠지만 어..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뭔가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끝까지 지지하고 믿고 격려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단순히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자녀를 바라본 거지. 어떤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면이었던 것 같아. 내 자녀가 가정을 이뤄서 살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딸이니까 그렇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애가 좀 더 그러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으면 그 경제적인 책임을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였지.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족에 의해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뭐 오빠들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좀.. 어.. 어찌 보면 이건 내 입장이니까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내가 그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30) Goffman(1963)은 한 사람에 대한 가상적 정체성과 실질적 정체성의 괴리가 일어날 때 스티그마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어... 뭐든지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잘 참는 성격인지를 알기 때문에 니가 그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 때에는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항상 이혼에는 누구의 잘못이 크냐를 사람들이 따져.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 그니까 뭐 니가 참지 못하고 니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시선보다는 애 아빠 쪽에 더 많은 귀책이 있을 것이다. 그니까 나한테 다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좀.. 그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는 받았던 거 같아. (II-p.2~3).

2) 이혼 전 가족의 이혼여성에 대한 유책 부여와 이혼여성의 방어

한편, 원가족의 부모들이 이혼여성들의 이혼 선택에 있어 남편에게 유책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과 관계를 끝낸 전 남편은 이혼여성에게 유책을 미루는 이야기를 한다. 해당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전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결혼 가족이 해체된 사례가 주었다³¹⁾. 이 중 아직까지 전 남편과 전 남편의 가족에게 자녀를 보내는 이혼여성들(B, D)의 경우 남편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이혼이었기에 이혼여성의 선택을 결혼가정을 유지하지 않은 책임으로 연결시켜 자녀들에게 엄마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전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여성들에게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야기의 골자는 결혼가정에서 이혼여성들의 부정적 행동이 있었음을 부각하고 결혼가정이 깨진 원인이 이혼여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 음.. 그 시대 부모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평가한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건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B : 그냥 엄마도 이런 부분 잘못 되었었어.

연구: 그 잘못된 게 뭔가요?

B : 그 가령 뭐.. 아빠가 깔끔한 가정생활을 원하는데 엄마가 이걸 안 치워주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뭐 아니면 엄마가 좀 일찍 들어와서 아빠를 챙겼어야 되는데 엄마가 저녁에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간다던가 약속이 있어서 못 하는 것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났었던

31) 자세한 내용은 연구참여자 소개를 참고할 것.

거야. 그니까 이제 아빠의 행동이 아빠의 행동은 엄마가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낸 거야. 이거에 대한 당위성? 그런 얘길 하시더라구요. (II-p.10).

D : 처음에는 많이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애 아빠가...

연구: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D :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면 안 될 말.

연구: 엄마에 대해서?

D : 네. 뭐 엄마가 걸레라는 등.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응. 그래서 애들은 엄마에 대해서 상처 받고 오고. 그니까 이제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애네들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안 좋지. 그리고 그러면 굳이 내가 애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욱 하는.. 아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니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II-p.5).

이혼여성들은 전 남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도 방어의 논리를 펼친다. 그래서 D의 이야기처럼 “니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다”라며 기분 나쁜 분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며(II-p.5) 자기가 남편이 묘사한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여성들은 전 남편과의 공방에서 이내 남편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자녀들에게 표출하는 걸 자제하려고 한다. 중간에서 자녀들이 각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겪을 상처와 혼란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유책에 대한 스티그마 공방은 이혼여성의 침묵과 자녀에게의 해명으로 끝을 맺는다.

3) 유전무책, 무전유책

잘 모르는 타인들은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 경로에 따른 상황맥락을 보지 않고 경제적 상태에 따라 귀책 요인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달랐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을 그녀들의 경제

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남자에게, 낮을수록 여자에게 이혼의 책임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B, C).

C : 남자들 보는 자체가 틀려요. 그 돈이 많으면 여자가 일단 좀 당당하잖아. 남들 앞에서도. 진짜 그래요. 누구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없으면 약간 위축이 되고 남자들이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연구: 어떤 식으로 무시를 할까요? 어떻게 대우를 하고?

C : 하이고.. 참 어려운 말이야. 일단 좀 사람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그 사람들도 생각 자체가 틀려요. 대하는 게. [없는 여자들은] 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데 있는 여자는 너 그랬는데 신랑이 그랬니[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III-p.22).

연구자가 타인들이 왜 이혼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는 게 다른 거 같냐고 질문하자 B는 사람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신세가 더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타인들은 돈이 있는 이혼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얻을 게 있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한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은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돈이 없는 이혼여성들에게는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드러내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 나아가 이혼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 우에노 치즈코(2008)는 ‘결혼제국’에서 사람은 자기와 타인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면서 나를 구축한다고 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된다. 결혼가족이 주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 제도적 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혼여성들을 타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혼여성들의 삶을 자신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한다.

연구: [돈이] 있는 사람이 이혼했을 때랑 [돈이] 없는 사람이 이혼했을 때 똑같은 여성이 있다고 하면 타인이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지

는 것 같나요?

B : 달라지죠. 있는 사람.. 목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내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신세가 더 좋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몰라. 여자들만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잘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내 친구가 나보다 너무 잘 살면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런 양면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래. 이혼. 저렇게 살라면 나 같아도 이혼을 백 번 했겠다. 그 이혼이 너무 당당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그래도 내가 낫지. 재보다. 이런 안도감?

연구: 재는 뭐 하려고 저렇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B : 네. 위안 삼는 거. (III-p.19).

4) 자신에게로 돌리는 책임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만 결국 이혼을 자신이 선택하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책임이라는 자기 스티그마를 부여하였다. 이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서로 인식하는 바는 다르더라도 결혼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 부족, 미숙한 행동, 전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자신, 그리고 끝까지 결혼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했다. 때문에 “[이혼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책임”(B-III-p.9)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어쨌든 이혼하게 된 것도 자신의 책임”(A-III-p.19)이라는 말로 자기 스티그마화 했다. 특히 B의 경우는 이혼 후 “혼자 남게 된 것”과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남겨진 것”을 후회의 이유로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스티그마에는 현재의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노력해봤자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남아있다.

A : 음... 어쨌든 이혼하게 된 것도 제 책임이잖아요. 그게 또 저로부터 나온 거일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는 어려서 몰랐는지 깨닫지 못해서 음... 못했던 건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때 그니까 결혼관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가 현명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결혼 지식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이혼하지 않는 과정.. 좀 지금 내 과정을 좀 더 재미있게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거는 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III-p.19).

B : 그..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상대방과 내가 이거는 하나의 지켜야 되는.. 그냥 무조건 좋아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되는 가꾸어야 하는 하나의 그런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 때 인지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 했지.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하나의 모습에 무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온전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내 부모한테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자녀는 또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내가 잘못했든 두 사람이 결국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니까 일단 첫 번째로 혼자로 남게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III-p.3).

2. 이혼여성을 격하하기

1)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인식과 부당한 요구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스티그마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혼여성들에 대한 해당 스티그마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로, A가 겪은 경험처럼 그녀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할 때 그녀는 자신이 타인의 호의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반발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할지에 대

해 혼란해한다. 밑의 인용에서 보듯이 “굳이 그래야 할까?”, “감사는 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것도 관심이다”로 귀결되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A가 불쌍하다’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부여 받았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호의와 동정의 구분이라기보다 혼자 산다는 것이 뭔가 결핍되고, 불쌍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점이다. C 또한 같은 경험을 겪었는데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이 와서 일을 하라고 권유한다. 일을 하고 돈을 벌라는 권유와 제안 아래에는 이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있다³²⁾.

A : 저를 불쌍하게 봐요.

연구: 불쌍하다는 시선은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

A :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어... 뭐라도 챙겨주려고 할 때.. 내가 굳이 어..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니지. 불쌍하다라고 보기보다 도와줘야 한다는 이런 느낌들이 더 맞겠죠. 불쌍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좀 더 챙겨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선 항상 그랬던 거 같아.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안 챙겨줘도 먹을 거 하나씩은 더 챙겨줘야 하는 것들. 굳이 그래야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 물론 감사하죠. 감사는 하지만 아.. 근데 한 편으로는 그래 이것도 나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연구: 그래도 이제 사실 불쌍하다라는 느낌은 타인한테 받고 싶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A :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찾아지니까 조금 아니예요.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II-p.20).

32) C의 경우는 처음에 사장이 ‘이혼을 했으니 나와서 돈 벌라’는 소리에 대해 불쾌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여기서 사장의 호의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스티그마에 이혼여성이 혼자 산다는 걸 불쌍하거나 결핍되는 존재라는 논리를 근저에 깔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혼여성들의 경제적 빈곤을 유발하는 사회적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데 재분배 방식인 현금 지급 외에도 인정 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다.

연구: [아르바이트 하는 곳] 남자직원 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대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죠?

C : 예전에.. 제 사촌오빠가 할 때 이력서를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누나 이혼했다고. 누나 이혼했다고. 여기 일을 오기 전에 몇 번 말을 그렇게 했어. 처음엔 거슬렸어요. 되게 그 말이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누나 돈 벌어야 하니까 빨리 알바 나와. 누나가 몇 명을 썼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누나가 제일 맘에 들고. 차가 없어 내가 그랬더니 출퇴근 자기가 시킬 테니까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가자고 우리는 이제 식구처럼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 그 날 그렇게 말을 해서.

연구: 혹시 어머니 처음에 그 사람이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 아니지만 어머니의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C : 불쾌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아이씨 [이전 사장이었던 사촌]오빠가 얘기를 했나? 하아~~ 아 진짜 막 그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좀 그렇더라.. 유쾌하진 않았죠(II-p.9).

Nussbaum(2015)은 사람이 수치심을 가질 때 이 감정은 젠더화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녀에 의하면 남자는 완전함으로, 여자는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신의 결핍성을 감추려고 노력한다³³⁾. 하지만 여자들이 가진 불완전성, 결핍성이 드러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수치심을 느낄 일이 많다. 이와 같은 논리를 결혼가족과 이혼가족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대다수인 결혼가족은 완전함으로, 소수자³⁴⁾인 이혼가족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은 결국 주류와 소수의 경계

33) Nussbaum(2015)은 남자와 여자, 불완전과 결핍 구분과 할당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34) 여기서 이혼여성을 지칭하는 소수자의 개념은 다수와 소수 같은 수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소수자는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20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수자 개념을 받아들여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을 소수자 영역으로 포함시켜 2006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국가에 권고한적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과 정치적 문제로 입법이 철회되었다.

사이에서도 구분되고 있다.

둘째로, 타인들은 이혼여성이 만약 우리 사회에서 고가로 여겨지는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 사적 경계를 과도하게 침입 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가지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를 붙였다. A의 경우 경제적으로 결핍해야 하는데 그녀가 큰 차를 가지고 다니자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는 A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A : 제가 좀 차가 커요. 근데 이제 아니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차를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연구: 어~ 경제력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네요?

A : 그렇겠죠? 제 차 아니예요 나는 이렇게 말 하거든요. 내 차 아니니까. 그럼 누가 줬어? 저희 아시는 분이 차 안 타서 나 타라고 했어요. 그냥 그 분하고 같이 써요. 아~ 그래? 좋은 사람 많이 아네? 이렇게. 아예 그냥 내놓고. 그니까 그 말의 의미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 들었을 때는 왜 이런 차 좀 타면 안 돼? 하하하하

연구: 그니까

A : 제가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도 없으면서 어떻게 차가 있어? 그렇게 큰 차가? 도대체 누가? 그럼 이제 그 뒤는 뭐 이상한 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연구: 누가 해줬다.

A : 어~ 애인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허허허.

연구: 참 별 정말..

A : 그니까 말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II-p.23~24).

마지막으로, 이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스티그마와 직장 해고라는 실제적 결과를 연결시키면서 위협을 하였다³⁵⁾. D는 가정 내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있기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려워진다. 직장의 상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르지 않는 D에게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반말을 함부로 한다. 직장 상사는 그녀가 직장을 그만 둘 시 생계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간파하고

35) 스티그마는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속성, 스티그마의 내용, 스티그마의 결과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배경의 스티그마를 참고할 것.

한 행동이었다. 해당 행동은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를 통해 실제적인 지위상실과 차별이라는 현실(reality)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연구: 음~ 혹시 뭐 이 이혼 관련해서 사건 때문에 선생님의 삶을 뭔가 위협했던 사건들은 없나요?

D : 음... 위협하거나 그것보다는 그거를 애[직장동료]를 통해서 알았던 직장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연구: 아~

D : 그런데 이 직장상사가 나를 자를 순 없으니까 그리고 티를 낼 순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각서를 쓰게 했어요.

연구: 음~ 네.

D : 결국엔 그거거든.. 아까 위협? 그걸로 위협한 거지. 아~ 내가 니 모가지를 자를 수도 있어.

연구: 근데 그 사실들이 이혼 관련한 내용들이었나요? 그 각서에 넣은 거는?..

D : 아니. 그 각서에 넣은 건 이혼 관련은 아니었고 하지만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잘리면 애가 생계적으로 힘들니까 저한테 그.. 무릎을 꿇을 거라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거라고 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알지만 내가 각서를 써줬어. 왜? (중략) 그리고 반말을 막 지껄이더라고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하고 누가 뭐라 했어. 아이~ 뭐 나 어찌고 저찌고. 나 개랑 친하지도 않아. 그 새끼 나한테 반말하더라고. 얘기했어요. (II-p.29~30).

2) 이혼여성과 부정적 성격의 연결

이혼여성들에 대한 스티그마는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약하고 결핍된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결혼가족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센 여자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결혼가족을 이탈하고 남성의 보호를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세고 모난 성격으로 읽혀진다. A는 교회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엄마가 살짝 예민하게 생기긴 했지”라고 성격적 요인을 이야기 한다던가 “자신이 긴장해서 말이 딱딱하게 나가면 깽쟁이, 차가운 이미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II-p.22~23).

C 또한 “자신을 좋지만은 않게 볼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II-p.18). 타인들은 그녀가 느끼는 사람 관계에서의 긴장하여 보이는 태도나 원래의 습관보다는 결혼가족의 이탈로 그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 송제숙(2016)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미성년으로 취급된다고 지적한다. 여성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읽힌다(박권일 외, 2016). 하지만 남성의 그늘로부터 벗어난 여자들은 결핍을 가진 미성년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성격의 미완성,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의사 결정 등을 이혼여성의 성격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여성을 어딘가 성격이 좀 이상하고 부정적이고, 모난, 센 여자로 보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연결시켜 사람들은 이혼의 유책을 여성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한다(A-II-p.22).

A : 여자들이요? 흠.. 우선 좀 뭐라고 해야 돼. 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그랬기 때문에.. 흠... 왜 이혼했을까? 이유가 첫 번째겠쥬. 그런 거..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 어... 생김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좀 어... 일명 세 보인 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니가 성격이 그렇게 모가 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연구: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A : 그쵸. 이미지에 대한 추측이쥬. 그걸 굳이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이미.. 첫 번째 이미지하고 연관을 지는 거쵸.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III-p.9).

A : 그런 거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 어... 재가 좀.. 이상한.. 이상한 사람 아닐까? 좀 예를 들어서 생긴 게 좀 이상하면 니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혼 했겠지. 행동이 하나가 잘못 됐으면 니가 그런 행동 때문에 버림받은 거야 라든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니가 그렇게 딱딱하니까 니 남편한테 버림받았겠지 이런 것들. (III-p.22).

연구: 어머님, 우리 사회에서 이혼여성이 어떤 이미지인 것 같나요?

C : 저희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연구: 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나요?

C : 그..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좋게는 보지 않을 것 같아. 니가 바람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니가 행동거지가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구요. (III-p.18).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은 이혼여성들이 가족을 지키고 정숙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타인들은 자신들이 느끼기에 이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이혼여성을 방만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 C는 이전 직장동료들과 맥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자녀를 혼자 두는 모습을 보고 타인들은 “애기 혼자 있는데 너는 혼자 놓고 있어도 돼? 너는 생각 없어서 그래도 되나 봐” (II-p.25~26)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같은 시간에 나와 맥주를 마셔도 누구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결혼가족이라는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혼여성 또한 이혼의 책임을 이혼을 선택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주변에 이혼한 사람에게는 같은 방식을 행한다. 자신은 마치 부정적 속성이 없지만 다른 이혼여성들은 있는 듯 이야기하여 같은 이혼여성 간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결국 사회적 스티그마로 부여받는 언어들을 이혼여성들은 내재화시키고 이 언어들은 동등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가로막을 만든다. B, D의 경우 주변 이혼여성 중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없기에 결혼을 빨리 선택하고, 아이에 대한 출산도 방만하게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이혼여성들이 왜 이혼을 선택하는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외제차” (B-III-p.20~21), “밤에 술 먹고 늦게 돌아다니는 행위” (D-II-p.12) 등 표면적으로 그들에게 보

이는 상황들로 이혼에 대한 이유를 연결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의식이 없고 방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생겼다는 논리를 자신과 비슷한 대상에게 적용한다.

연구: 세대에 따라 이혼여성들은 다르다?

B : 네. 조금 달라졌죠. 많이. 오히려 나는 20대 때 이혼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불과 1년도 못 살고 뭐 이혼하고 내가 보면 딱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제가 보는 케이스는 잘못된 케이스 인지는 몰라도 제가 본 케이스는 이혼하게 생겼네 이게 말이 나와요.

연구: 어린 친구들 중에도요? 네. 어떻게 그러나요?

B : 그니까 외.. 재는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했대. 저런 애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이혼하게 생겼다 이렇게?

연구: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B :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자유분방하길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덜컥 애가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자고 좋아해갖고 갑자기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애가 안 생기더라도 그냥 사느니 결혼하자 이렇게. 스타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라곤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아~ 재는 이혼하게 생겼다 그렇게 보여. 이혼이 책임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본 베이스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거 같아. 정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결혼을 너무 늦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노느니 뭐해. 내가 직장생활 취직할 것도 아니고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 사회만] 해도 외제차가 엄청 젊은 사람들이 몰고 다녀서 깜~짝 놀라잖아요.

연구: 네. 요즘 많이 몰고 다니더라구요.

B : 근데 그게 바로 재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 돈을 내줄까. 우리는 몇 십년을 벌어도 저걸 못 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사고보자.

연구: 지금 누리자.

B : 네. 렌탈로 해도.. 렌트로 해서 갚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겉모습이 괜찮아야 좋은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하고 성형이나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도 아마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혼하게 생겼다. 이런 정확한 책임의식도 없고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빠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
(III-p.20~21).

D : 근데.. 어.. 근데 지금 [우리 직장]에 26살 먹은 여자가 있어요. 개도 이혼해서 애를 혼자 키우고 살아. 근데 개도 그런 끼가 있어. (중략) 지가 어지르고 있었다가도 그런 거. 그리고 뭐 엄마하고 싸웠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한 대. 그러면 보면 내가 볼 때 그 언니가 그러는 거야.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2시, 3시에 들어오면 어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겠어. 근데 그런 것이 듣기 싫은 거야. 애는. 물론 어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가 어리기 전에 엄마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III-p.12).

3. 이혼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다른 평가들

1) 성적으로 무화(無化)되는 여성들

연구에 참여한 이혼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나뉠대로의 여러 금기 사항들이 있었다. 이러한 금기를 통해 이혼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와 그들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형성 자체를 단절해버린다. 이 때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주체성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무화(無化)시킨다. 무화된 자신들이 순결하며 마음에 찻찻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D-II-p.25)³⁶⁾. 성적 무화성을 유발하는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혼여성의 성적 자원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을 교류해서는 안 됨.
- 둘째, 남성과의 성적 스킨십 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됨.
- 셋째, 자녀가 보기에 부끄러운 관계를 할 수는 없음.

36) B의 경우는 이혼 후 재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유일한 연구참여자였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모습을 더 가꿔나갈 것이며 남성과의 관계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집으로 들어가거나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B는 남성과의 관계를 맺을 의지는 있지만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 남들의 시선 등을 우려하는 듯 했다.

먼저, 첫 번째 금기로 이혼여성의 성적 자원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을 교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 금기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교류가 금기시되는 사회적 배경³⁷⁾, 이혼여성의 경제적 빈곤상태, 남성의 권력적 이용에 대한 부당함의 표현보다 주변 이혼여성들의 성격을 평하는 스티그마를 주로 부여한다. 남성은 “원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교류를 자신의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고 따르는 주변 이혼여성들은 원래 부도덕하고 방만한 것처럼 묘사된다. C, D의 직장에는 직장 동료 중 몇몇 이혼여성들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직장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고용계약을 연장하였다. 그녀들은 다른 이혼여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했다. 또한 이득이 되면 뭐든지 할 거 같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D :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옛날보다는 시선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보니까 아까 제 옆에 있던 그 애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야. 근데 그걸 이용해가고 남자들에게 옷 사달라고 하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돈 뜯어내고. 그게 아주 이렇게 자리를 잡힌 애더라고. 어릴 때부터. (I-p.24).

C : 저 주위에 보면 그 때 직장 다닐 때 보면 많더라고. 그 꼭 원래 그 무리 중에 꼭 한 두 명이 물을 흐려 논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37) 이혼여성들의 성적 자원교류와 경제적 자원의 교류는 성매매 행위와 비슷하다. 성매매는 젠더(여성성)를 자원으로 한 성서비스와 돈의 교환이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매매가 사회의 도덕과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최병각, 2004). 196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가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성매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방식은 여성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1960년대 먹고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여성들의 절대빈곤 등이 성적 자원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도출하였다(신그리나, 2013).

이혼여성의 성적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교류는 성매매 행위를 둘러싼 개입과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해당 스티그마에는 성적자원을 교류하는 이혼여성들 개인의 윤리적 타락, 사회의 도덕과 풍기문란,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성적자원의 교류라는 배경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성매매라는 행위는 저속하고 부정적인 직업형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배경과 직업인식에 따라 D는 해당 이혼여성들을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격하시키는 말을 하기도 한다(II-p.13).

있었어. 그 언니가 사장님하고 그러고. 자기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 친구도 이혼을 하고 애들도 유학을 가 있고 이렇게 연애정도 그.. 뭐 그것을 좋아해서 만난대. 그 언니는 굉장히 그걸..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래. 그니까 좀 섹스에 미친 여자라고 해야겠쥬. 애들은 다 컸는데 이렇게 좀 방치하더라고.

연구: 애들은 밖에 독립한 건 아니구요?

C : 딸은 서울에 있고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기본적인 거는 엄마가 챙겨줘야 한다고 밥 같은 건 아무리 챙겨먹을 수 있어도 와서 보고 해야지. 막 일 끝나면 남자친구한테 가고 막 하루 종일 막 둘이 여관에 있고. 애기 혼자.. 아무리 다 컸지만 남자가 언제든지 부르면 그 날 새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오는 것 같애. 저는 그런 거는 이해하기 싫어. 근데 그 여자 분은 이렇게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관계를 다 갖더라고. 이렇게. (I-p.24~25).

해당 스티그마에는 D의 이야기처럼 ‘몸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혼여성들이 몸으로 교류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교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고 몸의 노화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E-II-p.10).

둘째로, 이혼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과의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등을 공공연히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타인들에게 성적 행동은 가려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서 하는 성적 스킨십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C의 경우는 자신의 친구 중 남자친구와 성적인 스킨십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싫다’ 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 근간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더럽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C : 왜 그렇게 [남들 앞에서 성적 스킨십을 보이는] 행동을 하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랬더니 개가 나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거부할 수가 없대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근다고 내 몸을 허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연구: 그러게요.

C :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정말 나쁜 생각인데.. 그걸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또 이 스킨십 같은 게 좀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을 모임이 있어서 한 번 보면 저번 주에도 이제 갔는데 약간 스킨십이 있더라고. 이렇게. 딴 애들이 빠져 나가고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담배 피러 갔다 오면 근데 꼭 그제 내 눈에만 띄는 거예요. 둘이 찼한 스킨십을 하면.

연구: 둘이 스킨십을 하는 게.

C : 아~ 나는 먼저 간다고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나도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어. 남자가 그러면. 그냥 막 들이대면. 이틀테면 쉬운 말로. 그런데 아~! 개가 좀 하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문란하잖아요.

연구: 그럴 수도 있죠.

C : 혼자 또 더럽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연구: 그럴 수 있어요. (III-p.7).

마지막으로 이혼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와 자녀관계를 대치시키면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걸로 이야기한다. D의 경우는 경제적 불안을 이야기하며 남자를 만나볼까 하지만 서로간의 관계에서 해줄 게 없어 시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꺼림칙하며 자녀들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는 이혼여성 혼자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경제적 불안감이 있지만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을 만나고 싶지 않고 자녀들에게 남성의 존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한다.

연구: 그럼 선생님은 이걸 좀 어려워니까. 선생님은 혹시 선생님은 재혼한다는 가능성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남자를 사귀다거나?

D : 아니 말은 그래요. 주변에서 그래. 어? 젊고 아직 젊고 예쁜데 왜?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고 해요. 말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굳이...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 가끔 이제 이런 불안은 있죠. 이제. 가끔. 아.. 애들이 점점 크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음... 부를 축적해야 애들을 더 키울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어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잘 써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만나 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두 번 정도는 해봤던..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꺼림칙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야. 그래. 같이 살 때도 뭐 내가 혼자 다 했는데 같이 살 때도 내가 혼자 다 했는데 굳이 내가 왜 그리고 내.. 예쁜 내 새끼들,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을 눈치를 보이게 해. 뭐 이런 거 그런 게 더 크죠. 아휴 우리 지금 자유롭고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음.. 잘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놓고 서로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 (II-p.1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여성들은 성, 남성과의 관계, 경제적 불안이 연결된 이야기들을 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과 남성과의 관계, 경제적 자원의 교류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자신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성, 남성과의 관계, 경제적 불안에 대한 담론들을 축소해버린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적 순결의 강조와 남성과의 관계 맺음이 세속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혼여성 개인의 성적 주체성, 남성과의 관계 욕구는 마치 불순한 결로 여겨진다. 그래서 남성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는 여성은 정상이고 관계를 잘 맺거나 특히 경제적 교류를 하는 여성은 비정상으로 여긴다.

성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여성은 ‘순결’이라는 속성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긴다. D는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순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찻찻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챙기다보면 잊어버린다고 말한다(II-p.25). D의 이야기는 이혼여성이 성적 주체로써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킴을 의미한다.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순결을 지키는 여성은 성숙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게 여겨지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은 부도덕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편으로 생각된다(이경미, 1995). 그래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억압시키는 기제가 된다.

2) 갑의 위치에서 이혼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남성들

이혼여성들은 ‘1) 성적으로 무화(無化)되는 여성들’에서 서술한 남성과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금기들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교류하는 여성들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을 둘러싼 남성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혼여성들의 성적 자원을 취할 수 있다는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다³⁸⁾. 이혼여성의 성을 둘러싼 이혼여성의 생각과 남성의 생각이 모순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여성들은 이혼 외에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성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혼을 밝히는 건 훨씬 더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함부로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A, B, C).

A : 근데 제가 4년 정도 이 보험을 했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 같아. 남자들은 여자가 혼자면 무조건 대쉬 먼저 들이민다는 거. 정말. 대쉬도 아니고 이건 매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솔직히 많이 겪으니까 [이혼을]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III-p.16).

남성들이 이렇게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혼여성의 성적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혼여성보다는 상위의 직급에 있거나, 고액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직급과 임금의 격차는 매우 크다³⁹⁾. 즉, 사회 내에서 남성이 갑이고

38) 이혼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대상화는 앞 절에서 나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거라는 인식에도 해당될 수 있는 스티그마 현상이다. 그러나 해당 현상은 이혼여성의 성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근저의 논리로 그들의 경제적 결핍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남성의 성적 대상화로 정리한다.

39)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 11월 1일 발표한 연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지수가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8위로 아프리카 튀니지(117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격차 지수는 경제참여·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 권한에 대한 부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경제참여·기회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사업무 임금평등 항목에서 121위이며 작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여 한국의 남녀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21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분석했다(한겨레, 2017). 사회적 환경에 대한 현 지수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여성이 올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로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성은 자신의 직급이나 경제적 상태의 우위를 얻음으로써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남성과 여성의 갑을관계에서 권력남용의 해석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에 위치하는 게다가 이혼여성인 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남성들에게 인식된다. 남성들의 이런 시선과 평가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이혼여성을 노리는 계산적 음험함에서 유발된다(박권일 외, 2016). 그래서 C의 이야기처럼 남성은 자신의 사장이라는 위치를 통해 고용계약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다.

연구: 그럼 어머님 항상 주말 부부 식으로 얘기를 해 오신 거죠?

C : 그러죠. 거긴 남자, 여자 반절씩이거든.

연구: 거기서는 그 때...

C : 그리고 사장님이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혼자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많이 하고 일부러 이렇게 식사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스캔들 세 명인가 있었거든. 여자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합류하기.. 똑같은 대접 받는 것도 싫고 어떻게 보면 합류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 한 직장에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틀테면 둘이 바람은 날 수 있어. 팀장이라도 몇 십 년 그런 사이니까. 근데 이렇게 혼자 살거나 신랑이 일찍 죽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악용한다고 그래야 되죠? 내가 좀 오래 이렇게 해줄게. 계약기간 끝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먹으면서 술자리를 하고 이렇게 잠잔다.. 그 언니가 그 직접적인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저한테.

연구: 잠자리 만들어서 잠자리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거해서 계약 연장하구요?

C : 그러죠. 그니까 못 자르는 거지. 그 사람도 이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으니까(II-p.4-5).

B는 남성들이 이혼여성들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적 경제

남성은 여성보다 상위직급과 더 많은 임금으로 이혼여성의 성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편하게 침입할 수 있으며 갑인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제적 자원을 얻기 위해 성적으로 남성들을 돌봐줄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B : [보험업은] 단지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은 직업이고 남성들을 상대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은 다른 직업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죠.

연구: 그럴 거 같아요. 다수를 또 만나야 하는 직업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B : 네. 그리고 이제 이 고객들도 우리가 본인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 혼자 있는 사람이 편하다는 건 이혼여성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B : 응. 그러죠. 언제든지 부르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연구: 아~

B : 왜냐면 다 그렇다기 보다는 집안에..

연구: 아무래도 안 엮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B : 응~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편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그니까 자기가 어떻게 쉽게 뭐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내가 대쉬를 하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부모 가족들은 경제적 독립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구: 그럼 자기가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다.

B : 언제든지... 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죠.

연구: 그런 거를 목격하시거나 당하시거나 이런 적도 있나요?

B : 지금은 제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물론 이혼하지 않아도 그런 대쉬들은 와요.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내가 맘에 들면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자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도와줄 거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I-p.2).

4. 이혼여성의 불안한 돌봄

1) 자녀도 인식하는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

이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는 이혼여성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자녀들 또한 연합된 스티그마 현상을 보인다. 부모의 경제적 상태나 직위, 결혼상황이 자녀의 자부심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에게 엄마의 이혼 및 대다수의 또래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가족 상황은 자신도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속성이 된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의 이혼을 또래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빠가 있는 척을 한다. 이 현상은 1963년 Goffman이 주장한 Courtesy Stigma와 유사하다⁴⁰⁾. Courtesy Stigma란 스티그마를 받는 사람과 연합된 사람도 스티그마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여성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잘 말하지 않거나 말을 하더라도 깊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A, C, D, E). A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알다가 크면서 알게 되면서 엄마의 이혼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III-p.17). C의 경우에도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 갔을 때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아빠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C는 이전에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놀리는 걸 자녀가 듣고 울었는데 그 때의 경험을 통해 엄마, 아빠 한 쪽 중 없다는 게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II-p.15~16). D 또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너네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라고 이야기 했을 때 “아니야”라고 부정했다

40) 국내연구에서 Courtesy Stigma에 다룬 연구들은 두 편에 불과하다. 두 편의 연구는 해당 용어를 ‘암묵적 낙인’이나 ‘명예 낙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당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적은 관계로 용어가 일관성 있게 학문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원어 그대로 Courtesy Stigma를 사용하고자 한다. 관련연구는 이상운(2013), 자녀 상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 암묵적 낙인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교연(2017), 명예낙인(courtesy stigma)과 도전: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5.

고 했는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아빠가 부재하다는 걸 밝히기 꺼려한다는 걸 알 수 있다(I-p.12).

E는 이런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참여자였다. 그녀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대다수 살고 있었다. 그 곳에서 자녀는 “모두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기에” 절대 자신 부모의 이혼을 다른 친구들에게 밝히기를 원치 않고 있었다. 자녀는 “이게 상식이고 그게 아닌 거는 잘못됐다” (I-p.5)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결혼가족 상황과 다른 자신의 이혼 가족 상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까지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게 다 똑같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그지?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잖아. 근데 나만 없는 존재잖아. 그러기 때문에 뭐 남성이라는 것보다 아버지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 마찬가지로 또 엄마가 없는 집은 다~~ 엄마가 있잖아. 근데 나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 그러지 않나? (E-II-p.14).

연구참여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이혼 선택을 남들에게 밝히는 걸 꺼려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녀들은 우리 집의 부모형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가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자녀들 친구 안에서 위계를 형성하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여성들은 아이들이 “창피하고 평범하지 않다” (C-II-p.15/E-I-p.5)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가족 상황에서도 남편의 도움 없이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왔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A, B, D는 “결혼 가정에서도 나 혼자 거의 양육했다” (D-II-p.4), “둘이 다 있는 것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만한 쪽이 승리한다” (B-III-p.5)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자녀들의 비정상적 행동, 불안정한 행동, 이혼을 숨기는 행위를 보면서 실제로 이혼 가족의 돌봄 행위를 불완전하다고 여긴다. 자

녀들이 자신이 제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그녀들은 자신이 이혼을 선택해서라거나(A-II-p.3~4) 자녀를 잡아줄 아빠라는 남자가 없기 때문이라거나(B-I-p.10~12) 남녀 부모가 둘 다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한 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긴다(D-I-p.23).

A : 그런데 00⁴¹⁾는 조금 3학년이면 생각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눈치가 저희가 싸우면서 대화 속에 이혼 하자 이런 말이 오갔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고 있었을 거 같긴 해요. 00는. 그니까 그 때부터 약간 과격적으로 좀 변했던 거 같고.

연구: 과격적이라는 건 친구들한테 한 건가요?

A : 그죠. 아이 성향도 살짝 그러긴 한데 이제 대화가 없어지면서 말이 없어지면서 친구들하고 대화가 아닌 이제 폭력적으로 말도 폭력적으로 되어 버린 거 같아요. 말도 상당히 폭력적이었으니까 그 때는. 지금도 지금은 좋아진 거 같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 때는 정말 심했던 거 같아. (II-p.3~4).

B : 그리고 애들도 말 했고. 헤어지고 싶다고. 아빠하고 떨어져 살고 싶다고 얘기해서.. 근데 이제 떨어져 살아서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엄마가 이 불안정한 아이들을 케어 할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뭐 어떤 교육 같은 거.. 이 나를 좀 다 잡을 수 있는? 오히려 한부모 가족 아이들을 보면 뭐 캠프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나 부모들부터 캠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치유 받고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언제든지 응급으로 전화하고 아이가 이려고 있는데 정말 내가 불안합니다.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결국엔 아이들 문제는 누구한테도 상담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아이의 치부를 누군가한테 드러낸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그걸 감당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연구: 맞아요. 그..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어머님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더라구요. 애들한테도. 또 특히 난 혼자 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엄격해지는 경우도 많고.

41) 이혼여성의 자녀들은 익명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두 00으로 처리한다.

B :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연구: 특히 불안감도 높고 성적으로 더 엄격해지는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그런 행동이 발현 됐을 때 문제 행동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B : 왜냐면 사실 저도 막 문제가 아이들이 집에만 안 들어온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막 아빠한테 전화해서 혼.. 혼.. 엄마는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인데 아빠는 무서운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 무서운 존재가 아이를 딱 잡아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정말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거를 이걸 왜 내가 아빠를 애들한테 만만한 존재로 보게끔 했지? 이런 후회감. 남편하고 헤어졌을 때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I-p.10~11).

D : 아직은 00 같은 경우에는 어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는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아닌데 뭐 아직도 얘기 같은 행동.. 00가 이제 하는 거 보면 안쓰럽고 아 애가 퇴행현상인가..?

연구: 아~ 어떻게 하는데요?

D : 음... 원래 그랬는데.

연구: 제가 좀 매달리고 다치고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 할 때.

D : 이제 그런 거 말고 저한테는 이제 가슴 만지려고 하고 쭈쭈 빨려고 하고.

연구: 아~ 그런 거.

D : 그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쪽~ 해왔던 거긴 한데 해왔던 거긴 한데 야 이제 너 11살이나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이제 잠잘 때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끔 만지.. 뭐 이렇게 한번 입에다 대보고 자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아.. 뭐.. 그 사랑이 부족한가? (I-p.23).

E는 이혼여성들이 자신들의 돌봄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집안의 남녀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집안의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질서나 규율을 남성들이 잡아주어야 하는데 이혼가족은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빠, 엄마가 없는 집안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인식은 남성의 안전, 보호가 가족 안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E : 아직은 홑가정에서 키운다는 거는 어... 좀 나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 입장에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긴 해. 그런데 어.. 문제가 있는 가정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아무.. 만약 자녀 입장에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문제여서 자녀 양육을 서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자녀 입장에서서는 한부모 가정보다는 양부모가 있는 게 그게 자녀입장에서는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자녀한테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가 해 줄 역할이 있고 엄마가 해 줄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혼자서 키우면서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참 많이 힘들어. 어... 왜냐면 애한테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 집안에는 민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연구: 질서

E : 집안에 민주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거든 (II-p.13).

2) 이혼여성의 돌봄에 대한 이중적 시선

이혼여성들은 이혼한 사람의 돌봄을 다르게 파악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돌봄을 이혼과 분리하여 생각해줄길 바랬지만 그들은 다시 사회적 잣대로 타인의 돌봄을 이혼과 연결시켜 생각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래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자녀의 배우자가 만약 이혼한 가정의 자녀라면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지 질문하였다.

A, C는 이혼여성들은 일단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가정의 자녀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부모의 이혼 사유를 꼭 물어볼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부모의 행태를 자녀들이 닮는데 이혼을 한 부모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C는 이혼을 한 사람의 자녀들이 못 배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를 배우자로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 혹시 이러진 않겠지만 00이 배우자로 한부모 가정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그 땐 어머니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 같은가요?

A :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구: 음~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A : 좀 더 이왕이면 어... 왜 이혼을 했는지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고 왜냐면 우리 약간 그러잖아요. 그 부모 밑에 있으면 똑같이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게 싫은 건데.. 이제 설득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설득해서라도 안 되면..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밖에 없겠죠. 하하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II-p.15).

연구: 근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그 상대방 가족.

C : 가족이 반대한다면?

연구: 응.

C : 그니깐.

연구: 반대할까봐도 우려가 되고?

C : 어. 많이 되죠. 왜 그냐면 나도 나도 싫었으니까. 그제. 결혼할 때 이렇게 혼자 홀어머니 밑에 자라고 이러면 나 그 남자.. 남자친구를 안 만났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연구: 네. 알아요.

C : 그리고 아빠가 혼자 있고 이렇게 혼자 된 가정에서 그.. 진짜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 홀어머니 밑에서 컸더라고. 그래갖고 과감히 그 때 저는 안 만났어. 그래서 음... 00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애. 나 같아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저도 환경을 먼저 봤거든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알죠? 이렇게 돈 많고 잘 배우고 그런 남자가 좋기는 하잖아. 못 배우고 없는 집보다는. (I-p.29).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냐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들도 이혼에 대한 평가는 받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자녀들을 잘 돌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활습관을 고치려고 한다거나(C-I-p.28~29) 자녀가 공부를 더 하길 바라고 있었다(A-III-p.16~17).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한 타인에 대한 돌봄은 불완전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돌봄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녀들은 이혼한 사람의 돌봄에 대해 이중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

5.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재현하는 사회 환경

1)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복지 제도

이혼여성들은 자녀를 기를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외에도 생계와 돌봄, 가족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반된다. 그녀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번 경제수익으로는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유지해나가기가 벅차다고 느낀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만 지급될 뿐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용(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조건 없이 제공받지 못한다. 이혼여성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여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들은 생계급여가 자신들이 적용되기에는 애매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40대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가족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거주지를 가지거나 경제참여를 하여 노동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국가에서는 이혼여성의 주거나 경제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차량 등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막고 있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을 때에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전 남편의 재산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했다⁴²⁾. 이혼여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 여성이 혼자 이혼을 선택하여 이룬 가족 형태를 국가에서,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연구: 어.. 그 국가에서 해주는 뭔가 한부모에 대한 대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혼여성들의 어떤 권익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B : 이혼여성의 권익향상에 도움은 안 되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도움? 근데 굉장히 어떤 데든 다 허점이 있겠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정말 도와줄 건지 아닌지 그냥 근데 너무 기준점이 애매한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준점이 좀

42) 실제로 그러한지 연구자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질문하였을 때 아동의 부양의무자로 전 남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은 자녀와 전 남편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스스로 국가에 증빙해야 한다.

많고 가령 차가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된 차를 그 때마다 그 때마다 고치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굳이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점을 안 가지는 게. 지금은 5년만 되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그런 불필요한 제한들? 그리고 막 뭐 물론 부모님이야 직계가족이야 직계가족의 소득을 본다는 것까지 괜찮지만 남편의 소득은 뭐하러 봐서 남편은 지금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것이 맨날 보도화 되고 있는데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지금 이런 기준점들이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의 권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단지 아이를 양육할 때 뭐 혼자 한부모일 경우엔 자기 혼자 아이를 기르.. 아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인 사람은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 날 그 날 나온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 정도지. (III-p.21~22).

연구: 어머님.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받으시는 건 아니죠?

C : 전~혀. 저는 그.. 해당 사항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연구: 소득이 있으니까?

C : 그거 때문에. 아니면 저도 주거 2000에 20이라 그거를 7~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여기 동사무소 센터장님이랑 잘 아세요. 그 분도. 그래갖고 센터장님이 저를 좋게 얘기하시고 그 분도 저를 좋게 봤나봐. 그래가지고 어머님 같은 사람이 맨날 혜택을 보고 일 할라 하시는데 어만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그 분이 한 달 동안인가 두 달 동안인가 엄청 서류 꾸며가지고 막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거든. 안 됐어. 아예~

연구: 7~8만 원 그거 아예 안 되었어요?

C : 예. 안 됐어. 월세를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주고 해주거든요. 7~8만 원 해주면..

연구: 주거지원 이런 거?

C : 어어. 그럼 12만 원만 내도 진짜 그..

연구: 그러죠.

C : 큰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 [주거를 위해서 모은 돈이] 소득이 잡혀서. (I-p.16~17).

E : 혼자 별면서 양육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건 나머진 다 돈이거든. 그러잖아.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돈, 어찌려고 해도 돈.

그렇다면 아이에게 적어도 내가 아직 시선은 올바른 가정으로 한 가정이 되진 않았잖아. 한부모 가정들이 아~~ 그런 가정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구성원의 한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약간 뭔가 조금 결함이 있거나 결손이 있거나.

E : 어. 그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너무 평범한 가정보다 많은 거 같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의 서로의 책임을 부여해서 같이 할 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야 이 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덜 할 거 같아. 사회적 문제나 뭐 소외계층이나.. 애네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서 결국에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애네들이 또 남루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잖아. 그리고 요즘에 워낙 돈이 많아야 애들이 학벌도 좋아지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바르게 키워내지 못하는 게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부분보다도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워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올바르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드는 교정 비용이나 국가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복지 부분이 오히려 나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아동기까지는 국가가 같이 책임져야 가지 않을까 싶어. (II-p.16~17).

따라서 이혼여성들은 혼자 번 경제수익으로 집안의 유지나 자녀의 돌봄에 대한 비용, 생계에 대한 비용을 감당한다는 게 점점 빈곤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유발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스티그마를 사회적으로 부여받거나 아니면 내재화 시키게 된다.

한편, 이혼여성들은 결혼가족 상황에서 분리되었기에 급격한 상황 변화에 있어 자녀들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해주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소외계층’이라는 이름으로 한 데 묶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녀들은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복지 프로그램은 많고 다양한 반면 질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

지” 라는 스티그마를 또래 관계 내에서 계속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II-p.20).

B : 한편으로는 그.. 외 이런 거 있잖아요. 언짢은 모임이라기보다.. 언짢은 모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디 캠프를 보낸다 그러면 어려운 아이들, 집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만 보내.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데 아이들 정말 성향도 안 좋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될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렇게 어렵고 안 어렵고를 권하지? 그냥 차라리 한부모 가족이면 그냥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부유한 사람, 중간인 사람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공유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형편 어려운 거밖에 없지만.. 뭐 부모.. 니네 부모는 어땠어? 니네는 어떻게 치유를 했어? 이렇게 극복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양육에 관련된 것들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III-p.23~24).

E :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외계층이라고 규정되는] 그런 애들 대상으로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개네들을 데려오는 선생님들 태도도 벌써 틀려. 상관도 안 해.

연구: 개네들 소외계층이라고 규정되어진 애들이 오면?

E : 응. 데리고 오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수업하고 끼어서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개네들[애들] 놔두고 (중략) 데리고 와서 우리는 그게 어떤 저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대부분 와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야. 복지에서 하는 건 그렇다는 말이야. 복지에서 하는 거니까.. 또 애들한테도 다 알려지고 하니까 그 때는 얼마나 저기하겠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냐면 이제 개네들이 같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같은 학교를 가잖아. 그럼 개는 그걸로 낙인을 시키잖아. 재는 그렇대. 재 뭐 재 거지야. 애들이 쉽게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II-p.20).

2) 로맨스에 치중하는 대중매체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회가 부여하는 스티그마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본 고에 기술한다. E는 TV 매체는 이혼여성의 모습을 이성애중심의 여성으로 성애화(sexualization)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의 맥락, 자녀돌봄이나 경제적 어려움, 주거분리의 급격한 상황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고 이혼을 하면 자유연애만 몰두하는 식의 묘사를 지적했다. 이혼여성의 자유연애를 통한 경제적 상황의 극복은 이혼여성들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남성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사회적 상황을 재현시켜 그녀들의 상황이나 어려움, 문제점 등을 축소한다.

연구: 혹시 선생님 그... 뭐지? 우리 사회에서요. TV에서 보이는 이혼여성의 이미지는 어떤 거 같으시고 나는 어떤 거 같으세요?

E : 그니까.. TV에서는 너무... 좀 뭐랄까? 왜곡된 게 너무 많은 거 같아. 실질적인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왜곡된 게 많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이혼하면 총각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처럼 비춰지고 어찌 보면 뭐.. 이런 자유연애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혼에 이제 드라마는 갈등 상황을 극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뭐 바람이네, 뭐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몰아가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고 또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면 재미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화 시켜놔야 사람들 눈에 막...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 벌써 이혼을 해서 집부터 없잖아.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저기지 않으면 그러면 갑자기 잘 사는 사람이 내 집 들어와서 살아라 하고 내 집 주고 그게 말이나 안 되잖아.

연구: 네네네.

E : 다 어려움이 있잖아. 그리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니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우리 사회가. 근데 이.. 착한 남자는 양육비 꼬박꼬박 다 주고 자녀를 꼭 책임져야 해서 같이 공동 양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들로만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때로는 아니면 아예 자녀는 빼놔버리고. 뭐 그런 부분은 다루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 그냥 아예 자녀가 없이 갈라서서.

E : 아니. 자녀는 있지만 그 자녀의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상에서 빠져있고 각각 남자는 뭐 남자대로 연애, 엄마는 엄마대로 연애. 이런 식으로만 음... 너무나 극화시켜놓은 거지. 드라마에서는. 그리고 뭐... 혼자서 그렇게 요즘 중에서는 뭐 저기 한 게 [드라마]에서 큰 딸이 이혼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 사실 그게 그~렇게 현실적이진 못한 것 같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에서는.

연구: 어떻게 묘사가 돼요?

E : 거기에서도 보면 어... 나도 그걸 처음부터 보진 않았는데 뭐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첫째 남편이 애한테 사기꾼이여가지고 빚까지 다 떠넘여가지고 해서 이제 뭐.. 내가 어... 돈 때문에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두 번째 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뭐..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다시 이혼을 했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둘이 진짜 사랑을 한다. (II-p.9~10).

3)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

노동시장 환경과 이혼의 교차하는 면에서 나타나는 스티그마는 주로 취직과 직장에 관련된 맥락에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H시가 일 할 곳이 없고 임금이 적기에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H시 실태조사서⁴³⁾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실로 드러난다. 실제로 H시 실태조사서에서는 산업체 중 채용계획이 있는 곳이 ‘건설업>제조업>교육 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들이 취직하고 싶은 곳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숙박 및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취업처와 실제 일자리에 불일치가 있었다. 여성들이 건설업, 제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및 고정관념, 편견이 존재

43)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밝히면 맥락을 통해 자신들이 연구참여자임을 유추할 수 있고 연구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실태조사서의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혼여성들의 직업 선택은 스티그마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가 이혼여성들이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냐고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연구: 이혼여성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H시랑 다른 시랑 다른가요?

A : 일자리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이상한 일만 하잖아요. 저희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아요. 생각 자체가 차라리 서울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서 굳이 뭐 예를 들면 술집을 간다거나 도우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지방이면 지방일수록 애기 엄마들이 도우미를 뛰는 사람이 많고 뭐 노래방 이런 거 가는..

연구: 이혼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A : 네! 노래방 가는 엄마들 많고 술집 다니는 엄마들 많고 아~~ 그렇다. 여기 아는 언니 하나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언니가 술집을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둘 키우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산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아니.. 아닌 거지. (III-p.24).

A의 이야기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 사회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혼여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만약 같은 임금을 벌더라도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 자원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혼여성들은 저임금 일자리 중 부정적 인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복합 스티그마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저임금과 이혼이 결합하여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에서는 주 5일제에 15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지만 중소도시인 H시는 대다수 150만 원 이하의 임금만 벌 수 있기에 이혼여성들이 혼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했다. 경제적 자원은 이혼여성의 성과 돌봄과 관련된 스티그마와 연결되어 있다. 즉, 경제적 자원은 이혼여성이 성적자원을 대체시키지 않아도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불안한 자녀돌봄이라는 자기스티그마의

극복 기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H시의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일치, 저임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

본 절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처 경험을 설명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처를 문제 중심 대처로,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그에 따르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거나 경감 및 완화시키는 대처를 정서 중심대처로 본 것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의 스트레스 상황을 스티그마를 부여받는 상황으로 두고 이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스티그마 변화를 추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대처 경험을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가장 좌측에 있는 ‘피하기’는 이혼에 대한 타인·자기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피해버리는 대처행동이다. 스펙트럼 중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태도, 행동을 바꿔 스티그마를 극복하는 ‘관리하기’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타인과 자기 스티그마는 바꾸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맞대응하기’는 타인과 자기 스티그마를 바꾸려는 대처로 보았다.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당 연구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따른 대처 경험 유형화

1. 피하기

1) 관계 피하거나 끊기

이혼여성들은 타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상황을 예상하거나 부여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을 구성하는 생각들을 위협받을 때 관계를 피하거나 끊어버린다. 그녀들은 스티그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식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애초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스티그마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읽혀지기에 이혼여성들은 관계를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대처행동을 한다. B는 남동생이 자신의 이혼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봐 처음부터 자리를 피한다.

B: 근테 다 모여 있을 때는 굳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생들이랑 다 있을 때. 왜냐면 관계가 원래 돈독해서 우리 남동생하고도 누나,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갔을 건데 결혼생활 하면서도 워낙 그게 가까웠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음... 또 남동생네 온다고 하면 그냥 일찍 가거나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찍 자리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III-p.13).

C의 경우는 이전 직장의 사람들과 모임을 한다. 그 과정에서 C는 모임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 거라는 스티그마를 부여한다. 그 과정에서 C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끊는다.

C: 저는 옛날에 예~전에 이제 알았던 오빠들이랑 그.. 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직장 다녔던 오빠들이 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만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그 한 오빠는 아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모임을 할 때도 나는 약간 빼놓는다? (중략) 어.. 자기들

말대로 다 골프도 치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어느 순간 끼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연구: 아~ 진짜요?

C : 응응. 그래가지고 약간 소외된 나중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 음 그래갖고 난 나가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연구: 돈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

C : 그러게. 응. 넌 노후 대책 어떻게 할래? 나한테 이러더라고. 응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랬죠. 그리고 아~ 너는 골프 뭐 하나? 너는 연습장 좀 다녀라. 나한테 이러고. 야 언제 우리 가자. 나 뭐 알아듣지도 못한 그 골프 얘기 있잖아. 그런 게 무시를 하는 거죠. 돈으로. (III-p.22).

한편, D의 경우처럼 자기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논리를 가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를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피하거나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대처행동을 했다. 그녀의 친구는 심적 외로움으로 인해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D에게 알리고 계속 교류를 원하지만 D는 친구의 이러한 행동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성적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가 친구라는 존재로 혼동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친구와 관계를 결국 끊어버린다.

D : 그런 거는 없었고. 주변에 친하지는 않지만 좀 멀리 있지만 친구 중에 두 명이 이제 이혼한 아이가.. 친구가 있었는데.. (중략) 개 같은 경우 이제 애가 없으니까 그랬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두 번 째 결혼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지금 애 키우고 혼자 살거든. 혼자 살고 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관계를 갖기도 하더라고.

연구: 아~ 남자친구들과의 관계?

D : 어.. 예예. 이렇게 관계를 갖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 때 당시에 나는 이혼을.. 이혼 재판 과정에 있어가지고.

연구: 선생님이 재판 과정에 있을 때?

D : 재판 과정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개는 전화를 해 가지고 외롭지 않냐는 등. 뭐가 외로워? 나 지금 정신머리 없어 죽겠는데!

연구: 친구 분은 잘 교류 안 하시는 거..고?

D : 안 해요.

연구: 맞죠?

D : 네. 또 이런.. 이런 게 있더라고. 애는 사람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거지같이 좀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암튼 자꾸 의지. 의지를 하려고.. 막 의지 할라고 하는 게 지금 나 스스로 이렇게 곤추 서 있는 것도 어찌면 힘들 수 있는데 개까지 제가 맡아줄 만큼의 오지랖?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II-p.14~15).

2) 무시하기

이혼여성들은 자신과 성적 가치관이 다른 여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도 그런 여성과 같은 평가를 받을까봐 무시하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대처행동을 한다. 특히 경제적 자원과 성적 자원을 교류하는 이혼여성들을 무시한다. 해당 여성들은 매우 저속하며 자신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시를 통해 해당 여성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경계를 만들며 자신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혼여성들의 이와 같은 감정은 Lazarus & Folkman(1984)의 정서중심대처에 해당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녀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혼여성들을 만났을 때 남성들이 성적 자원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이혼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체시킨다. 하지만 무시를 하는 이혼여성들의 존재는 자신도 이혼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해당 이혼여성들과 같은 프레임으로 사람들에게 해석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D :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옛날보다는 아까 제 옆에 있던 그 애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야.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옷 사달라고 하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돈 뜯어내고. 그게 아주 이렇게 자리를 잡힌 애더라고. 어릴 때부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내 애길 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 그렇죠.

D : 관심을 두게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연구: 그 분 사회에서 만난 분이예요?

D : 음... 뭐 개 어렸을 때 운동할 때 보기는 했는데 자세히 알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었고 다시 직장을 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서 이제 그... 애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연구: 그러면서 다시 만나게 되셨구나.

D : 네.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개도 이혼을 했고 나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시선이 아 이쪽 일하는 사람들은..

연구: 이혼하는구나?

D : 이혼을 쉽게 생각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I-p.5).

C : 응.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싸잡아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트린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어요. (II-p.18).

2. 관리하기

1) 이혼했다고 이야기 안 하기

이혼여성들은 타인의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대신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혼 관련 스티그마를 극복하려는 대처행동을 주로 했다. 그녀들은 사회 내에서 남성과 일정 관계를 맺지만 절대 자신의 이혼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남성에게 이혼이라는 속성을 밝히는 것은 은연중에 성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A: 음... 굳이 어.. 사회..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이혼했다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이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나의 신상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거 공개를 해야 되나? 하하하.

연구: 아니요. 굳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니까 그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 고런 거를 고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사실 그게 아

니니까.

A : 저희가 좀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제가 4년 정도 이 보험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 같아. 남자들은 여자가 혼자면 무조건 대쉬 먼저 들어 민다는 거. 정말. 대쉬도 아니고 이건 매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솔직히 많이 겪으니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II-p.16).

B: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이성이 호감을 보이면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해. 외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좋게 생각하는 동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기가 싫죠. (II-p.16).

C : 제가 어.. 저 아는 언니하고 오빠하고 저희 식구들이랑 친한 분들랑은 알아요. 신랑이랑 헤어진 지 아는데 어... 직장에서 저희 신랑 있다고 그래요. 왜 그냐면 [직장] 다닐 때도 그 사장님도 보면 이렇게 혼자 된 여성들이 솔직히 요즘에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근데 보면 술 먹으면서 이렇게 잠자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야. (I-p.20).

또한, 그녀들은 오랫동안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혼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혼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치부가 되거나 이용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B처럼 이혼과 자신의 모습을 연결시켜 평가를 부여받는 게 싫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이혼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A : 그죠. 뭐라고 해야 돼. 물어보지 않는데 그냥 내가 먼저 나 이혼 했어 이런 건 좀 그러잖아요. 가정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러면서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계기가 돼서 하는 거 하고 내가 먼저 내... 치부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내 가정사라는 걸 먼저 말한다는 건 좀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은 하겠지만 물어보진 않았는데 말하는 건 좀... 불편스러워요. (III-p.12).

A : 히이~ 보험할 때는 아우~~ 밀도 끝도 없어요. 보험할 때는. 그러니까

일체 저는 보험할 때도 언니들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솔직히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어. 보험이라는 게 말이 너무 많아.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 말 안 했는데 저~~쪽에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재 이혼했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 그런 것도 겪었어요. 아휴~~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없고. 선생님들한테는 전혀 말도 꺼내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정말 사람의 말이라는 게 분명 알고 있는 분이 풍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입조심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굳혀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 뭐 친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그냥 넘어갔죠. 굳이 내가 변명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보험회사는 또 이혼했다고 하면 남자 만나볼래? 이런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영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소개시켜 주고 보험 하나 따고.

연구: 허어~~

A :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연구: 중개 알선산업도 아니고.

A : 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아는 언니는 거의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연구: 그렇게 해서 계속 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가는 거.

A : 얼마짜리 해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아예 달아버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II-p.17~18).

연구: 뭐 직장에서 예전 직장에서 아니면 이혼 하시고 나서 얘기를 한 거는 그 팀장님.. 그니까 그 오너? 그 분밖에는 없는 상태인 건가요?

B : 네네. 지금 직장에서 제가 오너분이 음.. 그 분한테는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 성격이 워낙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 두게 될 때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 잃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만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굳이 사생활을 다.. 물론 다른 분들 중에서 그 직장 내에서 이혼 하신 분들이 있고 재혼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어떤 모습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왜냐면 한 번 내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면 내 외모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재가 누굴 또 만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또 회사를 안 나왔을 때 재가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겨나는 게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는...

B : 네. 그냥 말하지 않는 걸로.. 직장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평판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I-p.8).

한편, E의 경우는 자녀의 Courtesy Stigma로 인해 자녀와 연결된 관계망에서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녀가 이혼가정이 비정상이고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 내에서 엄마의 이혼이라는 속성이 자신을 격하한다고 여긴다. E는 자녀가 엄마의 이혼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다 밝히더라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이혼을 말하지 않는 대처행동을 한다.

E : 딸하고의 관계는 아~~주 좋지.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혼이라는 거를 지금 제일 못 받아들이는 아이가 지금 우리 딸이지. 그래서 어.. 딸은 비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내가 나 이혼했어. 할 필요 없지만 관계가 지속성이 되었을 때는 나는 대체적으로 밝히는 편이거든?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 혼자이라는 걸 이야기 하는 편인데 우리 딸과 관계 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해. 왜냐면 우리 딸이 그 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딸과 관계되어 있는 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약~간 열리긴 했지만 아직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쪽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고. (I-p.2).

2) 다른 모습으로 상쇄시키기

이혼여성들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 자신에게 부여될 스티그마를 차단하는 대처행동을 했다. 그녀들은 이혼의 스티그마에 대한 타인의 인식변화보다는 이혼이라는 평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처행동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자신의 이혼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자신이 다른 행동으로 노력하여 극복을 하려는 대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A : 글썄..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당한 여자인 거고 이 사람들에게는 나도 당신네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굳이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 같아요.

연구: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A :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연구: 굳이 이혼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만 않을 뿐..

A : 네. 굳이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단 하나. 정직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의 솔직한. 그 사람들도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거 하나만 말 안했을 뿐이지. 다른 걸 속이거나 뭐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과 책임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다 내가 보충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III-p.20).

D : 아~ [이혼을] 오픈한 그거는 이제 대놓고 오픈한 건 아니고 어 알고는 있었잖아 하는 회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 성실하고 착하..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애들을 자격증을 따게 해가지고 취직을 하게 해줬어요. 하나는 나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애네들은 우리러볼 수밖에 없어 나를.

연구: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애.

D : 그만큼의 자질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자리가 생기면 그 때 줄게. 그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니까 완주군 쪽 수영에서는 제가 거의 신이에요. 신. (II-p.24).

D는 유일하게 경제적 상태를 올리는 대처행동을 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극복한 케이스였다. 그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에게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부여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 이혼과정을 통해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는다. 경제적 상태의 회복이 이혼여성과 관련된 스티그마-대처와 극복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라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밑의 인용에서 보면 경제적 상

태가 어려운 이혼여성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고 대우를 해준다는 걸 이야기한다.

D : 나는. 근데 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야. 돈 없는 애.. 돈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만만히 보고.

연구: 그렇죠. 돈이 있으면.

D : 자본주의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만만히 보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래도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살고 이러니깐 만만히는 안 보더라. 그건 있는 거 같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큰 단체.. 를 만들어서 법인을 내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연구: 맞아. 저도 이번에 뭐 받으셨다고 그거만 들었어요.

D : 아~ 그거는 다른 데다 넘겼어요. 다른 데다.. 그 쪽에서 하라고 넘기고 다른 것 또 하느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애[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이혼여성]를 대할 때는 야! △△야! 뭐 어찌고 저찌고 해요.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연구: D 샘 이렇게?

D : 어? 뭐 아니 그렇게도 안 하고 점잖게 뭐 회장님이 전화.. 전화를 했으면 [저한테는]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 회장이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이혼여성한테는]어? △△야 이리와. 이렇게 한 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연구: 딱 보이시는 거죠? 그게?

D : 네. 오히려 제가 [회장한테] 반말을 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왜 이렇게 일들을 하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말하면서 반말해도 그럼 어떻게 하다보니까.. [회장은] 그렇게 됐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애쓰시는지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하지 함부로 이야길 안 하거든. (I-p.24).

3) 자신의 돌봄을 보완하기

이혼여성들은 자신의 돌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학업이나 직업, 좋은 남편상의 강조를 하는 대처행동을 한다. 그 녀들은 아이들이 생활습관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남편상을 가

지면 자신과 다른 행복한 결혼가족의 유지를 할 거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행동의 강조는 결국 이혼 가족 상황이라는 자신의 현 상태의 부정을 의미한다. A는 자신이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기에 전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녀가 학업에 더 몰두해주길 바란다. 그녀의 딸은 춤이라는 예체능을 좋아하지만 지적으로 커주길 바란다.

연구: 혹시 그럼 학업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기도 하나요?

A : 학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죠.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연구: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A : 학업 같은 거는 이왕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안 했어요. 아 물론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솔직히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랬던 것 같다. 전 어렸을 때 되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년기에는 잘 살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못 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연구: 안정이 된.

A : 어. 안정된 시기였거든요. 근데 학창시절은 너무 못 보낸.. 유년기를 너무 못 보냈어.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공부가 됐든 인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됐든 근데 이제 00 같은 경우는 그.. 저의 욕심인 거죠. 저의 욕심. 그..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런 춤이나 우리 00이 춤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정된 춤.. 지적으로 컸으면 하는 바램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은 00한테 너는 이렇게 [학업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뉘앙스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III-p.16).

C 또한 자신의 돌봄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생활습관을 바꾸고 평범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대처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은 실패한 결혼가족 생활을 자녀는 잘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행동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인지, “평범한” 남자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생활에서 해당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립은 되어 있지 않다.

연구: 그럼 어머님은 00이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을 했으면 좋겠나요?

C : 제가 항상 00한테 되도 않는 어른 같은 말을 한다고 언니는 막 뭐라 해. 애기인데 넌 자꾸 왜 그러냐고. 근데 너는 엄마 같이 살지 마라고. 엄마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00아~ 니가 막 문 땅땅! 닫고 행동 막 올바르게 마음도 올바르게 어디 가서 일도.. 니가 공부를.. 왜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그런지 아니? 사람이 기본은 해야 그리고 어디 가서 직장을 들어가나 잘해야.. 내가 엄마가 잘~~ 하라는 말은 안하잖니. 나중에 니가 그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니가 좋은.. 그 남자가 그러면 엄마가 지금 혼자 살잖아. 그 사람이 아빠 없다는 이유로도 너랑 결.. 결혼 반대할 수 있어. 근데 니가 더 좋은 직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습관은 좀 고치고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빨리 넌... 근데 애기한테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 우리 00한테는. 00가 그니까 저는 평범한 그냥 직장.. 평범한 직장 그런 사람 만나서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어. (I-p.28~29).

3. 맞대응하기

1) 이해시키기

이혼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회적인 시선을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전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해시켰다. 그녀들은 더 이상 결혼가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럴 바엔 이혼을 해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했다. 해당 사례는 C에게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C는 원가족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혼에 대해 사회적인 스티그마로 평가했을 때 결혼가족 내에서 전남편의 도박, 바람, 자녀 목숨의 위협 등을 설명하며 이럴 바엔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II-p.2). 또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정어머니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 이해했다. C의 친정어머니를 이해시키는 대처과정은 Lazarus & Folkman(1984)의 문제 중심대처와 유사하다. 그녀는 친정어머니를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다.

연구: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좀 설득과정도 있으셨나요?

C : 저는 그냥.. 00 키우고 일하면서 이렇게 00를 이제 제가 일하다 보면 말길 때도 있잖아요. 주말에. 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 거의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때 엄마가 그런 일하는 거 보고 그냥 니가 살고 차라리 그래. 애기 혼자 키우는 게 낫다. 그럼 이렇게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 같아. 저 이제 애기랑 둘이 살아가는 걸 보고. 힘들어도 그냥 차라리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어머님이 좀 바뀌신 거죠. (II-p.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1) 이혼여성은 어떠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가? 2)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coping)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이혼여성들은 어떠한 스티그마를 겪으며 그 때에 대처 경험은 어떠한지에 관한 그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총 5명의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에 따라,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해 스티그마 경험은 5개의 주제묶음과 13개의 소주제, 대처 경험은 3개의 주제묶음과 6개의 소주제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스티그마와 관련하여 도출된 대주제는 “타인을 통해 만들어진 이혼여성에 대한 틀(frame)을 가지고 자신의 인식을 내재화 함” 이고 대처와 관련하여 도출된 대주제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려고 노력함” 이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후 논의를 함께 서술하였다.

1. 이혼여성의 스티그마 경험- “타인을 통해 만들어진 이혼여성에 대한 틀(frame)을 가지고 자신의 인식을 내재화 함”

첫 번째 연구결과는 ‘이혼여성의 선택과 책임의 연결고리’ 이다. 이혼여성이라는 틀(frame)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내용은 이혼 선택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혼여성들은 이혼 선택과 관련하여 유책을 부여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결혼가족의 해체를 처음부터 원하던 게 아니었기에 이혼여성에게 유책이 있다는 평가를 한다. 자녀들은 이혼 후에 전 남편(아버지)과 그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 이러한 평가를 듣고 이혼여성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 때

이혼여성은 처음에 분노를 하며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으며 자신의 행실이 결혼해체의 유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해명하려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분노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인식하게 하고 부모가 서로에게 각각 부여하는 이미지를 상이하게 함에 따라 자녀의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혼여성들은 이내 분노와 해명을 자제하는 행동을 했다.

다음으로 이혼여성의 선택 및 책임과 관련한 평가를 하는 존재는 친정 부모였다. 이혼여성들은 결혼가족에서 이탈 후 친정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이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친정 부모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 결혼가족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지켜왔기에 이혼여성의 선택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들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이혼여성들의 이혼 선택과 관련된 유책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은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나 당당함으로 여겨지지만 경제적으로 하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 선택은 이혼여성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거나 나아가 자신보다 열등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현상에서의 시사점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상태를 통해 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혼의 선택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은 경제적 상태와 교차하여 복합 스티그마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혼여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재현을 내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이혼여성에 대한 유책의 사회적 평가를 자신에게 다시 적용하여 이혼 선택으로 인한 결혼가족의 해체가 자신을 통해 유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이혼여성을 격하하기’로 이혼에 대한 선택과 책임의 연결은 타인들에게 이혼여성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도록 한다. 타인들은 부정적 재현을 통해 이혼여성을 실제보다 격하하며 자신들의 임의로 이혼여성의 자격을 규정한다. 이혼여성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인식과 부당한 요구이다. 타인들은 이혼여성들을 불쌍해하며 결핍된 존재로 여긴다. 타인들의 이러한 시선은 이혼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 나아가 연구참여자 D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의 직장상사는 수치심을 이용하여 이혼여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라는 스티그마를 은연중에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ussbaum(2015)은 사람이 수치심을 갖게 되는데 이 감정이 젠더화 되어 할당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의 논의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완전하고 결핍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결혼 가족과 이혼가족의 구분에 적용한다. 대다수로써 주류인 결혼가족은 완전함으로, 소수자⁴⁴⁾인 이혼가족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은 결국 주류와 소수의 경계사이에서도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혼여성이 고가의 물품(예: 큰 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완전, 결핍성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이성애적인 남성의 원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두 번째로, 이혼여성의 실제 성격이나 태도보다는 그녀들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이고, 모난, 센 성격을 가질 거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타인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이혼여성들의 성격을 연결시켜 이혼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주변 이혼여성들의 이혼 선택에 대한 맥락을 자세히 알려고 하기 보다는 그녀들의 단편적으로 보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면서 주변 이혼여성들이 방만한 성격을 가졌다고 지적하였다. 문제는 동일한 집단의 이해보다 분리로써 지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타인들이 만든 이혼여성의 틀로 평가를 당하기 싫어하면서도 그 틀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혼여성을 평가함으로써 같은 집단 내의

44) 여기서 이혼여성을 지칭하는 소수자의 개념은 다수와 소수 같은 수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소수자는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20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수자 개념을 받아들여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을 소수자 영역으로 포함시켜 2006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국가에 권고한적 있다(이준일, 2012). 그러나 당시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과 정치적 문제로 입법이 철회되었다.

이해를 가로막고 있었다.

한편, 이혼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발언을 삼가는 것과 순결의 강조가 이혼여성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 자기 스티그마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혼여성들은 주변 이혼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교류했을 때, 남성과의 성적 스킨십을 외부에 보일 때, 자신과 남성과의 성적 교류가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에 이혼여성의 성을 이야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여성들은 자신 또한 성, 남성과의 관계, 경제적 불안에 대한 실질적 욕구나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관에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성, 남성과의 관계, 경제성에 대한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혼여성의 성과 관련된 정체성은 아예 실질적 정체성조차도 형성하지 못하며 사회에서 만든 남성의 경제적 자원과 이혼여성의 성적자원교류, 순결 이데올로기 등이 담론으로 표류(drift)하는 상태로 보였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성에 대한 실질적 욕구나 고민보다는 표류하는 담론을 채택함으로써 진공상태에 들어 있는 성적으로 무화(無化)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혼여성의 돌봄과 관련하여 그녀들은 자신이 이런 가구와 실제 자녀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들은 자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고 혼자 가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모의 가구 상황이 자녀의 자부심이 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혼가족에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혼여성들은 미안해했다. 이혼여성들의 자녀들도 자신의 친구들 대다수가 결혼가족인 상황에서 자신의 이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른, 부정적인, 이상한 존재라는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었다. 이 현상은 Goffman(1963)이 주장한 스티그마를 부여받는 사람과 연합된 사람도 같이 해당 평가에 속해지는 Courtesy Stigma 현상이 연구 분석결과 드러났다.

이혼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여성 혼자로서 독립하여 돌봄을 하는 행위

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녀들의 불안한 행동, 엄마가 이혼했음을 숨기는 행위, 제어하기 어려운 자녀들의 행동을 맞닥뜨릴 때 자신이 혼자 주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렇게 느끼는 가정의 근저에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가부장적 논리가 들어있다. ‘집안의 민주적 분위기에서 남자가 가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할 역할이 이혼가족에는 없다’는 E의 이야기는 이를 증명한다. 이혼여성들은 자신들이 이룬 가족 형태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잘 키우고 학업을 강조하거나 직업을 좋은 걸 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평가할 거라 했다. 하지만 이중적이게도 그녀들의 자녀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를 배우자로 데리고 오면 부모의 이혼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꼭 평가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혼여성들은 자신은 돌봄 행위를 통해 이혼 선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혼가족의 돌봄은 이혼이라는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이중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를 재현하는 사회 환경이 존재한다. 첫째,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복지제도로 이혼여성은 자녀돌봄을 위한 다른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는 교육급여만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혼여성들은 전 남편과 가구를 분리하여 주거가 있고 노동시장에서 일정 소득을 벌기에 평가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제외되었을 때 자신이 만든 가구를 사회에서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이혼여성의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자로 전 남편이 있기에 자산조사(means-test)에서 전 남편의 소득 및 재산이 평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분리된 가구로써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혼한 여성들은 남편이 없기에 연애만 하는 식으로 그리는 대중매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TV는 이혼여성을 이성애중심의 여성으로 성애화하면서 그 외 다른 이혼 선택의 맥락, 자녀 돌봄이나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분리 등 이혼과 관련한 급격한 상황 변화를 축소했다. 이혼여성은 TV

드라마의 모습을 보면서 뭐든지 연애로만 귀결되어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마치 남성이 해결해줄 것처럼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셋째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은 이혼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인식이 좋지 않은 일자리(예: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녀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또한, 여성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시장은 이혼여성이 혼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걸 어렵게 하면서 그들의 성과 돌봄에 관련된 스티그마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2.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려고 노력함”

이혼여성의 대처 경험의 현상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피하기’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또는 자기 스티그마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대처 방식이다. 이 대처에는 관계 피하거나 끊기와 무시하기가 있다. 먼저, 관계 피하거나 끊기에서 이혼여성들은 타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상황을 예상하거나 부여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구성한 스티그마가 해체 당할 위협을 받을 때 해당 행동을 한다. 그들은 스티그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티그마를 바꾸려는 행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기에 이혼에 대해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을 애초에 피한다. 또한, 그녀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같이 자기 스티그마를 가질 경우에 그렇지 않은, 즉 성적인 행동을 추구하거나 행동하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접촉할 때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깨고 싶지 않아 관계를 끊는다.

한편, 피하기에서는 무시라는 행위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과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를 보인다. 특히 경제적 자원과 성적 자원을 교류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며 그들은 저속해서 자신과 교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지화 한다. 하지만 무시는 이혼여성들끼리 결국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무시를 하던 이혼여성들조차 타인들이 자신들이 무시한 이혼여성과 같이 자신들을

무시할까봐 불안해한다.

둘째, 관리하기로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도 유지하지만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극복하려는 대처다. 해당 대처행동에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안 하기, 다른 모습으로 상쇄시키기, 자신의 돌봄을 보완하기라는 대처가 포함된다. 먼저, 이혼했다고 이야기 안 하기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혼과 관련하여 성적 대상화를 당하거나 함부로 이용당하는 걸 피했다. 둘째로, 다른 모습으로 상쇄시키기에서는 이혼을 밝히지 않는 대신 노력하는 행동, 정직성 등을 보여 자신의 이미지를 대체시키려는 대처행동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대처행동에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올리려는 수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돌봄을 보완하기는 자녀들에게 학업이나 직업, 좋은 남편상의 강조를 통해 이혼가족의 불완전한 돌봄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셋째로, 맞대응하기는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대처행동이다. 이 대처행동에 해당하는 현상은 오직 하나의 현상만 분석결과로 도출되었으며 이혼여성들의 다른 대처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해당 대처에는 이해시키기로 이혼여성이 자신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정부모에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맥락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친정 부모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혼여성의 삶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제 2 절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와 관련하여 주류와 소수의 개념을 사회복지에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려지는 재현(representation)에는 그들을 향한 시선의 폭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의 이혼여성은 분

노감을 느꼈고 아니면 시선을 내재화해갔다. 이혼여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 낸 가구가 ‘평범하지 못하다’에서 결국 ‘잘못되었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혼한 가족의 수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이혼여성들의 실질적 삶에서는 미묘하게 느껴지는 억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억압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자신과 다른 타자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인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혼여성에 대한 선택과 책임의 부여, 이혼여성을 격하하기, 실제 섹슈얼리티와 다른 재현, 불완전한 돌봄, 실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은 결혼가족이 대다수인 사회에서 다른 형태인 가족구성원들의 실제 이야기들이 제대로 언어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문제는 원가족, 전 남편/가족, 직장동료, 기타 관계 등 이혼여성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마저도 이들을 구조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자산 평가 시 아동의 부양의무자로 전 남편의 재산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현행 전달체계의 과정은 여성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가족 상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에 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의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은 사회 내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⁴⁵⁾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차별과 억압에 대해 옹호 활동을 적극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이혼여성에 대한 소수자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사회구조의 재현에 따른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는 제도적 기준의 마련과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자는 2017년 제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⁴⁶⁾에서 소

4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다루는 이혼여성은 이 모든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 등치하여 기술한다.

46)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제시하여 소수자 유형으로 ①특정 성별, ②특정 종교, ③ 특정 장애, ④특정한 나이 집단, ⑤특정한 사회적 신분, ⑥특정한 지역에서 출생했거나 거주, ⑦특정한 국가에서 출생했거나 거주(외국인), ⑧특정한 민

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법률 사항에 사회복지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혼여성에 있어 스티그마와 경제적 상태의 교차성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혼여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한부모 가족으로써의 생계에 대한 결핍성을 담지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정현(2012)은 빈곤의 결핍성보다는 사회구조적 권력과 억압의 담론을 포함하여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혼여성들이 어떻게 사회 구조 내에서 밀려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이혼여성의 권력관계에는 젠더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과 역동에 대해 주목을 하며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젠더, 결혼상태, 생계부양자, 자녀돌봄자라는 역할적 맥락에서 결혼가족과 달라지는 이혼여성의 차이를 다른 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 또한 주류적 존재에 대한 이혼여성의 편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차이 있는 존재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차이와 분배의 연결 담론이 사회복지학계에 필요함을 제안한다.

셋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행동을 보며 사회복지학계의 대처개념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다수 사회복지 연구들은 하나의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이를 긍정대처와 부정대처로 나누고 긍정대처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으로 연구가 마무리 되어 왔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들었던 생각은 이혼여성과 관련된 스티그마가 현존하는 사회적 시스

죽, ⑨특정한 신체 조건, ⑩ 특정한 혼인 상태, ⑪임신 또는 출산, ⑫특정한 가족형태나 가족 상황, ⑬특정한 인종, ⑭특정한 피부색, ⑮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⑯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⑰특정한 성적(性的) 지향, ⑱특정한 학력, ⑲특정한 병력(病歷)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분류했다(이준일, 2012). 인권위에서는 앞의 열거 사항에 속한 사람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국가에 10년간 입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성적 지향에 대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법 제정이 무마되었다. 2017년에도 여전히 권고상태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템 내에서 이들이 하는 대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라는 이분법적 선택보다 적응을 위해 이혼여성들이 부단히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읽혔다. 이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이해하기에는 긍정성만 강조하는 기능론적 인간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행동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대처하는지, 그리고 행동의 변화에 시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반 억압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혼여성의 소수자성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무엇이나라는 고민으로 귀결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생계와 부양의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제반 구조에 그들의 차이와 차별, 억압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다시 재평가해보고 방향에 대해서 재정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적 분배담론과 차이에 대한 고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 이후 AOP)의 사회복지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AOP는 1960년대 말 영국에서 사회복지 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한 사회복지 실천론이다(Dominelli, 2002; 양만재, 2016에서 재인용). AOP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접근 방법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식과 개인에게 미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존엄성을 강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복지 실천론이다(ibid, 781~782).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는 활발한 실천담론이며, 사회적 구조와 차이의 불평등, 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여성의 사회적 구조의 차이와 억압을 극복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AOP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탐구와 사회복지사들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간 인식되지 못했던 이혼여성의 정체성 인정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스티그마와 그에 대한 대처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 선정에서의 한계점으로, 이혼여성들이 모두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접근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를 더 포함시키고자 다른 이혼여성들을 접근해보았지만 이혼을 밝히기 싫어하여 연구참여자를 더 증원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고려하다보니 연구자가 2년간 다른 연구를 위해 필드워크(fieldwork)을 하던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정보제공을 받았기에 하나의 도시에 거주하는 이혼여성들만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만약 이혼여성들이 더 많았더라면, 다른 지역에 사는 이혼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이혼여성과 관련한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더욱 면밀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며 해당 과제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기로 남기겠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적 상태와 스티그마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만약 본 연구에서 경제적 상태가 매우 높은 이혼여성들을 만났더라면 구조의 차이와 억압에 다른 이야기들이 기술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연구 설계에 있어 이 점을 인지하고 부유한 이혼여성들과 접촉하기 위해 한 한부모 가족단체에 접촉을 하였으나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접근이 차단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높고 이혼여성인 사람이 겪는 스티그마와 그에 따른 대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justice)에 있어 인정 정체성과 차이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시스템 내의 사회정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 차이가 없는 분배와 평등에 초점을 두었지만⁴⁷⁾ 현실의 세계는 무수한 차이와 그에 따른 인정, 인정에 따른 배분과 자원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압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억압된 존재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해야 한다⁴⁸⁾.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위계와 이런 차이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대다수가 인정할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해방과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행 시스템의 사회복지나 여성·가족 정책의 재원 및 서비스 분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가치는 차이를 가정하지 않고 동등한 형태로의 지향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정의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Young(1990)이 집필한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Young(1990)의 차이에 입각한 정의론은 제도적 맥락을 출발점으로 삼는 정의론이다. 제도적 맥락은 국가, 가족, 시민사회, 직장과 같은 제도들에 존재하는 구조들이나 행동들을 포함한다. 또, 이 구조들과 행동들을 향도하는 규칙들 및 규범들을 포함한다.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47) 롤스는 정의론(theory of Justice)에서 평등과 자유 혹은 평등과 효율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정치 이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롤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기회평등의 이상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해서 분배정의를 추구한다. 롤스의 분배정의는 개인의 선택에는 민감하면서, 선택에 의하지 않은 나머지 여건을 배제한다(Kymlicka, W, 2002). Young(1990:53-58)은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들이 각각 하나의 점들로서 고립해서 존재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재화들의 꾸러미가 할당된다고 상정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한다.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에 원자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위계(hierarchy)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롤스의 정의론은 분배 대상을 주로 부, 소득, 물질적 자원으로 보지만 권리, 기회, 권력, 자존감 같은 비물질적 재화도 확대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48) 연구자는 차이를 인정하자며 존재를 원자화 시켜 놓는 다양성 인정 담론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와 인식에 따라 그들 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는 언어와 상징도 포함한다. 행동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 이 역량들이 형성되는 조건들이 이런 제도적 맥락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한에서, 제도적 맥락의 구성요소들은 정의와 부정의의 판단 대상이 된다(ibid:66). 이 논의에 있어서 정의는 첫째,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 둘째,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며, 행동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의는 첫째, 억압(oppression)으로 사회구성원 일부가 사회생활에 관한 자신의 체험과 감정과 관점을 표현하지 못하게 금제하는 여러 사회적 과정들이다. 둘째, 지배(domination)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제도적 제약이다.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들은 그들이 경험한 사회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정의를 일상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분배 담론은 차이에 입각한 정의론을 주장한 Young(1990)의 논의를 통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향숙. (2013).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미혼여성의 이성관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김경순. (2010). 이혼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학위 논문.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교연. (2017). 명예 낙인(Courtesy Stigma)과 도전: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5, 53-83.
- 김나희. (2003).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비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와 전략적 대응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옥. (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간호학회지, 29(6).
- 김소임. (2007). 인정(認定)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 김수정, 권신영. (2001). 이혼 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김순남. (2009). 성별화 된 이혼의 서사-상실의 경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41-72.
- 김옥경. (2012). 이혼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자존감 회복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2015).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인지, 이숙현. (2005).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 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

- 김정남. (200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95-617.
- 김정현. (2012). 가난한 이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기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혜. (2008a). 중년기 이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연구 : 중년기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8b). 이혼여성의 이혼의 의미 찾기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4), 35-71.
- 김혜선, 김은하. (2008).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주제 발표자료.
- 김혜선, 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
- 박권일, 김학준, 허윤, 위근우, 이준일. (2016). 혐오주의. 서울: 알마출판사.
- 박수정, 안민정, 소향숙. (2015). 결핵환자의 스티그마, 가족지지와 삶의 질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85-294.
- 박승억. (2007). 현상학, 철학의 위기를 돌파하라-후설 & 하이데거. 경기: 감영사.
- 박형숙, 배영실, 이성화, 유수정, 전소영. (2016).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1), 11-20.
- 박혜란. (1987). 성으로 본 여성의 실상-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변윤언, 이광호. (2009). 한국엄마 자녀교육론으로서 '그림자 교육'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시설환경학회지, 7(4), 33-42.
- 변혜선, 김은경, 김경덕. (2015). 폐암환자의 스티그마와 디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1(8), 223-240.
- 서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200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

- 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소현숙. (2014).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 75-113.
- 손현숙. (2007). 이혼여성의 자립과정에서의 갈등과 대응. 숙명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송승현. (2005). 정신질환자의 자기 스티그마와 그 극복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송옥. (2013). 40대 이혼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목회와 상담, 20, 30-60.
- 송제숙. (2016). 혼자 살아가기. 황성원 역. 서울: 동녘.
- 신그리나. (2013).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가족, 일, 나이듦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신유림. (2009). 한국인의 불인정 경험과 과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 신희정. (2010).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구조에 관한 연구-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악셀 호네프. (1996). 인정 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이현재 역. 서울: 동녘.
- 양만재. (2016).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적용가능성이 있는가?: Lena Dominelli의 실천과 이론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오선순. (2001).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이혼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와의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2007).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23-235.
- 우에노 치즈코. (2008). 결혼제국. 정선철 역. 서울: 이매진.
- 유연정. (2005). 복지 낙인(stigma)이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성가구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이경미. (1995). 성의 자율성과 순결이데올로기 : 20대 여성의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97-119.
- 이경희, 한재희. (2015). 이혼소송 피고 중년여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16(1), 353-371.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교육인류학 연구, 10(2), 41-64.
- 이기연. (2004).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서비스 수행경험: 시지프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상운. (2013). 자녀 상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상담에 대한 유용성 기대, 암묵적 낙인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 이순영. (2000). 30대 이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재은. (200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이준일. (2012).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 18(2), 177-222.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7(1), 175-210.
-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151-185.
- 전은주. (2001). 이혼여성의 사회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정미숙. (2007).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학위 논문.
- 정상규, 강국진(2010). 부모의 이혼과 자녀문제, 인권복지연구, 8, 29-57.
- 정현지. (2004). 여성가구주의 자녀양육부담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취업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20, 81-111.
- 지명원. (2001). 이혼여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천혜정, 임유미. (2007).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혼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3), 123-146.
- 최병각. (2004).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조국(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생각.
- 최은화, 이윤화. (2010). 이혼 후 여성의 자기인식 변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119-150.
- 통계청. (2016). 이혼통계.
- 허정은. (2002). 여성 한부모의 힘 기르기(empowerment)와 지지 집단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황은숙. (2005).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황은숙. (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 1-20.

2. 국외문헌

- Barnes, C., Oliver, M. & Barton, L. (2002). Disability studies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김도현 역(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서울: 그린비.
- Best, R. K., Edelman, L. B., Krieger, L. H. & Eliason, S. R. (2011). Multiple disadvantages: An empirical test of intersectionality theory in EEO litigation. *Law & Society Review*, 45(4), 991-1025.
- Campbell, C., Foulis, C. A., Maimane, S. & Sibiya, Z. (2004). "I have an evil child at my house : Stigma and HIV/AIDS management in a South African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5), 808-815.
- Corrigan, P. W. (1998). The impact of stigma on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2), 201-222.
- Corrigan, P. W.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 Practice*, 7, 48-67.
- Corrigan, P. W. & Watson, A. C. (2002). The paradox of self-stigma and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1), 35-53.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 1241-1299.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 esteem: The self 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stigma.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Boston: McGraw-Hill.
- Gerstel, N. (1987). Divorce and stigma. *Social Problem*, 34(2), 172-186.
- Giorgi(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역(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 Goffman, E. (1963). *Stigma :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rollman, E. A. (2014). Multiple disadvantaged statuses and health: The role of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5(1), 3-19. Duquesne University Press.
- Hammersley, M. (1992). What's wrong with ethnography? Methodological explorations. London: Routledge.
- Heatherton, T. F., Kleck, R. E., Hebl, M. R. & Hull, J. G. (2000).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New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 Henkel, K. E., Brown, K. & Kalichman, S. C. (2008). AIDS-related stigma in individuals with other stigmatized identities in the USA: A review of layered stigma.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4), 1586-1599.
- Holley, L. C., Tavassoli, K. Y. & Stromwall, L. K. (2016). Mental illness discrimination in mental health treatment programs: Intersections of race, ethnicity, and sexual orient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 52, 311-322.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도균, 조국 역(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원서출판: 1990).
- Jarrett, R. (1996). Welfare stigma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 single mother. *Family Relations*, 45(4), 368.
- Jones, E. F., Farina, A., Hastorf, A. H., Markus, H., Miller, D. T., & Scott, R. A. (1984). *Social stigma : The psychology of the marked relationships*. N.Y.: Freeman.
- Knesebeck, O. V. D., Kofahl, C. & Makoswki, A. C. (2016). Differences in depression stigma towards ethnic and socio-economic groups in Germany-exploring the hypothesis of double stigm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8, 82-26.
- Konstam, V., Karwin, S., Curran, T., Lyons, M. & Celen-Demirtas, S. (2016). Stigma and divorce : A relevant lens for emerging and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7(3), 173-194.
- Kymlicka, W.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장휘, 우정열, 백성욱 역(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동명사.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김정희 역(200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문화사.
- Lenhardt, R. A. (2004). Understanding the Mark : Race, stigma, and equality in context.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9, 803-909.
- Lincoln, Y. S. (1995). Emerging criteria for quality in qualitative and interpre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3), 275-289.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400-423.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son. J. W. (1975).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Part II. *Journal of Human stress*, 1, 22-36.

- McRae, J. A. (1978). The secularization of divorce. In Duncan, B. & Duncan, O. D. (Eds.), Sex typing and sex roles. p.227-242. New York: Elsevier.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C. T. & Myers, A. M. (1998). Compensating for prejudice: How heavy-weight people (and others) control outcomes despite prejudice. In J. K.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SanDiego, CA: Academic Press.
- Miller, C. & Major, B. (2000). Coping with stigma and prejudice. In Heatherton, T. F., Kleck, R. E., Hebl, M. R. & Hull, J. G. (Eds.), The psychology of stigma, New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 Monks, J. (1999). It works both ways' : Belong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Yuval-Davis, N. & Women, P. W. (Eds.), Citizenship and difference. p. 71. London: Zed Books.
- Fraser, N. (2008). Adding Insult to Injury: Nancy Fraser Debates Her Critics. Brooklyn: Verso Books. 문현아, 이현재, 박건 역(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 낸시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서울: 그린비.
- Nettleton, S.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Cambridge: Polity Press. 조효제 역(2009).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Newton-Levinson, A., Winskell, K., Abdela, B., Rubardt, M. & Stephenson, R. (2014). 'People insult her as a sexy woman': sexuality, stigma and vulnerability among widowed and divorced women in Oromiya, Ethiopia. *Culture, Health & Sexuality*, 16(8), 916-930.
- Nussbaum, M. (2004).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조계원 역(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Saylor, C., Yoder, M. & Mann, R. J. (2002). Stigma. In Larsen, P. D. & Lubkin, J. M. (Eds.), *Chronic illness: Impact and interventions*. Jones & Barlett publishers.
- Schneider, J. W. & Conrad, P. (1980). In the closet with illness: Epilepsy, stigma potential and information control. *Social Problem*, 28(1), 32-44.
-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 p.279-375. Academic Press, New York.
- Slater, L. Z., Moneyham, L., Vance, D. E., Raper, J. L., Mugavero, M. J. & Childs, G. (2015). The multiple stigma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in old gay men with HIV.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26(1), 24-35.
- Smith, J. (1984). The problem of criteria for judging interpretive inquiry.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4), 379-391.
- Stafford, M. & Scott, R. (1986). Stigma, deviance, and social control: Some conceptual issues. In S. C. Ainsley, G. Becker. & L. M. Coleman.(Eds.), *The dilemma of difference: A multidisciplinary view of stigma*. NewYork: Plenum.
- Taylor, C. (1994). *Multi 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M. (1998). *The problem of mental deficiency: Eugenics,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n Britain c. 1870-1959*. Clarendon Press.
- Vernon, A. (1998). Multiple oppression and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In Shakespeare, T. (Eds.), *The disability reader: Social science perspectives*. p.209. London: Continuum.
- Walker, L. O. & Avant, K. C. (199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Norwalk, Ct: Appleton&Lange.
- World Public Opinion. (2008). Poll : Across the world many see

discrimination against widows and divorced woman. World Public Opinion Org.

3. 인터넷 자료.

김진명(2007. 10. 26). 이혼자들 “은근한 차별이 서럽다”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6/2007102600073.html

두산백과사전(2018. 01. 28). “소수자집단” 검색 결과. 최종 검색일 기준.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8139

한겨레(2017. 11. 02). 한국 성평등 144개국 중 118위… “한국 다음은 아프리카 감비아”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17147.html#csidxf49489f95d376709d322ed260bc359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http://www.welfare.net/site/ViewMoralCode.action>

[부 록] 면접지

I. 연구참여자의 배경사항

1. 사례번호 :
2. 배경 파악 :
 - 1) 귀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 2) 혼자 되신 지는(이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3)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II. 사회적 스티그마 파악

1. △△님이 혼자 되시기 전과 후에 어떤 것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 1-1. 혼자 되시기 전과 후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신가요?
 - 1-2. 혼자 되시기 전과 후에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 1-3. 혼자 되시기 전과 후에 직장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2.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이 △△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나요?(원가정, 자녀, 직장, 기타 사회관계, 친구, 이웃, 활동하고 있는 모임)
3. △△님이 이혼을 했다는 걸 알린 사람과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 3-1. 알렸다면 언제 알렸고 어떻게 알리셨나요?
 - 3-2. 알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3. 알리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4. 이혼을 하고 나서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원가정, 자녀, 직장, 기타 사회관계, 친구, 이웃, 활동하고 있는 모임)

III. 자기 스티그마

1. △△님께 혼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 △△님은 이혼을 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다른 사람이 보는 △△님은 어떠한 사람인 거 같으세요?

IV. 스티그마에 대한 해석 경험

1. 차별이나 편견⁴⁹⁾ 등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2. 차별이나 편견 등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V.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

1. (위 질문과 연결선상에서)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셨나요?
2. △△님께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에게 △△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3. △△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49) ‘스티그마’라는 학술적 용어를 익숙하게 여길 것 같지 않아 차별과 편견이라고 했지만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스티그마’라고 하였다. 인터뷰 전에 ‘스티그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편견, 부정적 상호작용, 부당한 차별(예 : 직장 승진의 제한/학부모 모임의 참여 제한 등/임대 대출 불가 등), 집단에서 분리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Abstract

The Stigma and Coping Experience of Divorced Women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

Park, Song Y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Does the gradually more common phenomenon of divorce in Korea reduce the stigma towards divorc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orkers and family policy-makers on interventions for divorced women by revealing the stigmas they face and their coping mechanisms.

Within the dispute as to whether divorced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the topic about stigma toward divorced women and their coping experiences has quietly emerging. This paper addresses the experience of divorced women through the theory of Recognition Politic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Politics called identity politics, if one group is not accepted by society, members of that group will deny their own emotional needs, moral judgements and unique characteristics(non-recognition). Once the group embraces

non-recognition, members of that group will find it more difficult to form positive self-images or build healthy self-identities(Kim, 2007; as cited in Fraser, 2016). Divorced women living in societies where marriage is the norm are vulnerable to negative societal judgements. Therefore, I hypothesize that divorced women would be negatively affected by those assessments.

By connecting theory and phenomenon,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1) What kind of stigma do divorced women experience? and 2) How do divorced women cope with experience towards stigm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igma and coping experiences of divorced women via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find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 Korea. This study used qualitative studies, especiall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ive divorced women in their 40s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analyzed through Giorgi's (1985) Descriptive Phenomenology Method.

1) What Kind of Stigma Do Divorcees Experience?

5 theme clusters and 13 subthemes merged from the study. First, "The link between choice and responsibility for divorced women" describes divorced women's hope that their parents would understand their choice to divorce, when their parents, who hold patriarchal views on marriage,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their choice to divorce their husbands. Meanwhile, ex-husbands and their families put the responsibility of divorce on women when the husbands did not want a divorce. For divorced women in higher economic classes, ex-husbands were regarded as the ones who caused their divorces, labelling divorced women as "confident women." However, for divorced women in lower economic classes, women were considered the ones who caused divorce and were considered

“inferior” to women with families. As such, divorced women would internalize this stigma from society and believe they caused their family dissolution. Secondly, “Downgrading divorced women” refers to Korean society’s assumption that divorced women would face economic difficulties from their divorce. However, if people can not see a divorced woman who is not in an economically difficult state, Koreans conclude the divorcee has a man sponsoring her. They also presume that divorced women must have negative character if they choose to divorce. Even though divorced women do not like to be judged for their divorce, they also negatively judge other divorcees with the same stigma. Third, “Different evaluations regarding the sexuality of divorced women” refers to the effect of Korean society’s emphasis on chastity on concealing divorced women’s sexual desires, independent sexual behavior, and the exchange between women’s sexuality and men’s economic resources. Thus, divorced women are unable to form sexual identities.

Fourth, “Divorced women’s self-doubt in motherhood” suggests that although divorced women think they can take good care of their children, they did not feel confident in their nurturing abilities. This was especially true when their children would not reveal their mother’s divorce to their friends or when they could not control their children’s behavior. Also, if divorced women raised their children well, they expected other people would not think their child belongs to a divorced family. Meanwhile, divorced women think that the children of other divorced families seem negatively affected by the divorce. Finally, “The social environment that represents the stigma of divorced women” take many forms. In the current social welfare benefit system, the payment to single parents is small. Among the syste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ays single

parents through the means-test. Since divorced women are separated from their husband's house and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these benefits. In addition, a divorced woman is evaluated by the income and assets of her ex-husband, because the nation regards him as the burden of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social welfare benefit system of Korean society is based on patriarchy. As divorced women receive lower wages and unrecognized jobs in the gender-segregated labor market, the stigma of divorced women is intensified further.

2) How Do Divorcees Cope with the Stigma They Experienc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regarding the coping mechanisms of divorced women, resulted in 3 theme clusters and 6 subthemes. First, "Avoidance" means that although divorced women think that stigma is wrong, they avoid people with stigma because they know they will not be able to remove stigma from Korean society. Also, when divorced women have their own self-stigma, they remove from themselves from other people who threaten to dismantle their belief system. For example, divorced women with a sexually innocent self-stigma will ignore another divorced woman who engages in sexual activity. However, research participants were worried that they will be treated the same way with her who engages in sexual activity because they all choose to divorce. Secondly, "Managing" is a coping mechanism that attempts to change behaviors or attitudes, even if they do not encounter the stigma themselves, toward other divorced women to overcome the stigma of divorce. These actions include not talking about divorce, offsetting stigmas with different images, and supplementing their child care. Finally, "Confrontation" is the coping behavior that changes the stigma of oneself while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s phenomenon occurs less often than the

other coping mechanisms. Divorced women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live in a future and context in which they were forced to disclose their divorce to parents who did not understand their choice. With this method, while parent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at first, they gradually changed their views of divorce by accepting their divorced daughter.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due to divorced women's minority status, we should pursue social work practices that fight against the stigmas of divorce in women's daily l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Secondly, by acknowledging the effect of stigmas on divorcees' state, marital status, economic situation, and sexuality, a discussion of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Young, 1990) should be explored. Third, this study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question social norms, values, and standards, rather than encourage the adaptive coping behaviors of divorced wome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anti-oppressive practices should be explored to achieve the objectives found i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Keywords : Stigma, Coping, Divorced Women,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henomenological Approach, Qualitative Studies

Student Number : 2014-20254